

제418회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5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 긴급 현안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추가)
-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위원회안)(추가)

상정된 안건

1.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2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66
2. 긴급 현안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	67
1.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67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윤건영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52
3.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위원회안)	152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화요일 밤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먼저 오늘 현안질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또 걱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이틀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일구어 온 민주주의고 어떻게 만들어 낸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 허망함과 분노 그리고 참담함은 굴곡진 현대사를 끊임없이 견뎌 내면서 이겨온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한 미치광이 집단에 의해서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파괴되고 있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발표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참으로 황당하게 만든, 현정질서를 뒤흔든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도, 절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기 문란 사건이며 내란행위입니다. 대통령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든 국민 반란, 내란 음모의 수괴입니다.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 직후에 경찰은 국회 외곽문을 봉쇄한 후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출입을 막았고 국방부는 같은 날 밤 헬기를 동원해서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고 군홧발로 국회 본관을 유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군 병력의 투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원천 차단하려 한 의도이며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는 불법적 계엄의 해제를 결의하고 유혈사태 없이 6시간의 현정 유린 사태를 종식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러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반헌법적 비상계엄 속에서 군경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서 유린된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거나 국회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라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금번 사태의 본질과 책임이 무마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합니다.

주권자 국민은 묻습니다. 대통령을 접근거리에서 보좌하고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령의 선포 요건을 판단해야 될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반헌법적 계엄령에 대한 판단을 묻습니다. 내란과 외우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수호해야 될 경찰청장은 누구의 지시로 국회의 출입을 봉쇄하고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유린에 동참한 것인지 묻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과연 제대로 된 판단과 대응을 한 것인지 확인하고, 발의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을 찾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은 작금의 비상시국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5000만 국민 앞에 서 있음을 명심하시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엄중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10시16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기관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꼭 하게 해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 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좌우될 것 같으니까요 3분 내에서 여야 간에 균형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희 위원님 또 조승환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김성희 위원 저는 15초면 됩니다.

○이해식 위원 자료 신청만 할게요, 자료만. 자료 요청만 할게요, 저는.

○위원장 신정훈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막하게 그리고 현안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7분 질의를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약 2분 정도로 제한해서 제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저는 사상의 자유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생각에 대해서 캐물을 생각이 지금까지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 계엄 과정에서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내각은 특정해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도 포함이고요. 기본소득당도 그렇고 원내 정당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하고 일거에 소탕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보였던 게 이번 계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신성한 국회에 나와서 중언을 하는 이상민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기 있는 원내 정당들이 반국가 정당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선언하게 하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상임위 출입할 때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을 출입구에서 메탈 디텍터(metal detector)로 다 통과시켜서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스캐너를 가지고 검색을 하고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다고 그립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불러서 행안위에 출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안부장관을 만나러 가서 종합청사를 출입할 때 장관실 앞에서 경찰이 와서 스캐너를 갖고서 하고 소지품을 꺼내 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건 굉장히 상호 기관에 대한 존중이나 불쾌함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사무총장에 의해서, 사무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이것 확인 좀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몸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라는 건 우리가 명확하게 법률적으로도 현저한 범죄행위나 이런 위해 요소가 의심이 될 때 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무작위로 아무 때나 어떤 사람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서 현장에서 메탈 스캐너를 가지고서 검색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중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국회의원을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경찰을 그러면 검사를 안 합니까? 그걸 먼저 유감 표명하셔야지요.

○조승환 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위원장 신정훈 자……

○정춘생 위원 평상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조승환 위원 아니, 입구에서……

○이상식 위원 국회의원이 국회를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 신정훈 자, 그건 의사진행발언……

○모경종 위원 우리를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 김성희 위원** 저자들이 우리를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조승환 위원** 아니, 누가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김종양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지 뭘 지금 그렇게 해요!
- 용혜인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 김성희 위원** 경찰부터 조심하세요!
- 위원장 신정훈** 자, 잠깐만요.
- 이광희 위원** 아니, 지금 적으로 간주하는 저 경찰들에게……
- 위원장 신정훈** 자, 위원님들.
- 이광희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들.
- 이광희 위원** 그런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왔을지를 알고, 어떻게 들어올지 뭘 알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조승환 위원** 행안부장관은 뭐고 지금 선관위 총장은 뭐예요!
- 정춘생 위원** 위헌적인 계엄의 동조자예요!
- 이광희 위원** 당연히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님, 들어 보세요!
- 조승환 위원** 삿대질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 위원장 신정훈** 조승환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수색을 해야지.
- 조승환 위원** 아니, 우리의 안전이 아니라, 보세요.
- 이광희 위원** 저 사람들이 저를 막았어요!
- 조승환 위원** 이광희 위원님!
- 위원장 신정훈**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환 위원**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예, 왜요!
- 위원장 신정훈**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환 위원** 장관실 갈 때 앞에서 메탈 테스트 하고 있으면 말이 되겠어요?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 (장내 소란)
- 이광희 위원** 조승환 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 정춘생 위원**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쳐들어왔잖아요! 그 계엄에 동조했잖아요!
- 위원장 신정훈** 자, 위원님들……
- 조승환 위원** 아니, 행안부장관을 불러 놓고, 행안부장관이 안전에 위협이 됩니까?
- 이광희 위원** 당연히 위협이 되지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침탈한 사람들이에요.
-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광희 위원** 저 사람들은 국기문란을 한 사람들이에요!
- 위원장 신정훈**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광희 위원 내란 음모를 한 사람들이에요! 내란 범죄자들이에요!

○조승환 위원 그러면 범죄자를 왜 부릅니까?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잠깐만요.

조승환 위원님, 잠깐만요.

어차피 이 현안질의는 대단히 정치적인 생명과 또 자기 자신들의 법적인 책임까지를 감안하면서 이 자리에서 질의가 진행되고 답변이 진행되어야 될 겁니다.

위원님들, 오늘 이렇게 고성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드리겠고 또 현안질의 기회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인 위원장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저는 고성을 지른 적이 분명히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애시당초에 조금 더 제한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대신 시간을 좀 존중해 주시고 또 본인의 의지이지만 가급적이면 언성을 좀 낮춰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한 규정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의 장입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행위입니다. 그 범죄행위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출석한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은 내란죄에 동조한 범죄혐의자입니다. 당연히 국회사무처에서는 그 범죄혐의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통제라는 미명하에 막아섰던 자들이 바로 경찰입니다. 그런 경찰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국회사무총장이 그 정도 일을 했다고 해서 그런 걸 문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자리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의 국수본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임위장에 출석한 출석자 중에 국수본부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희 민주당은 국수본부장 출석을 위해 경찰청에 요구했지만 기존 관례에 따라 국정감사 이외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생각해 보겠다라는 그런 알량한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박하지만, 여당 간사에게 국수본부장 출석을 요청했지만 여당 간사는 시간이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의 동조자들에 대한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국수본부장을 출석시켜서 정확하게 수사 의지를 밝혀 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국수본부장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른 의사진행을 진행하기 전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현행 헌법과 법령상에서 내란죄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유일하게 지금 경찰청의 국수본부에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청장께서는 국수본부장 출석을 지금 즉시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관행을 초월해서 우리 국회가, 정말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염중히 인식하셔서 국수본부장의 출석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과 형법 이론에 의했을 때도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5·18 민주항쟁에 관한 사건의 판례에 의해서도, 판박이로 똑같습니다. 내란죄 인정됩니다.

그러면 이 내란죄에 누가 가담을 했고 어디까지 가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2월 3일, 4일 자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란죄는 수괴가 있고 중요임무수행자가 있고 부화뇌동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국무위원들 중에서, 우리가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려면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12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상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으며 상부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근거해서 하부기관이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지시에 관련된 일체의 공문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61기동대장과 국회경비대장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 지시문을 요구했는데 제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요구한 것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주요 임무수행자에 해당되는지, 수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요청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10시 28분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했습니다. 10시 46분과 11시 37분 이후에 경찰이 국회 외곽 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임무를 떤 경찰인데 오히려 통제를 하고 출입을 막아서는 그런 행동을 했지요.

국회 외곽 방호를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입니다. 당시 국회경비대가 적어도 세 가지의 무전망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먼저 국회경비대망이 있을 것이고 서울청 경비망 그리고 영등포서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일 날 무전기록 증거보전 요청을 했고 이어서 국회경비대망, 서울청 경비망, 영등포서망을 포함한 당시 가동된 무전망 녹취록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때도 무전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그때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다 공개가 됐지요. 녹취록뿐만 아니라 실제 녹음파일까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이 내란 사태는 이태원참사보다도 오히려 더 중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국민의 생명을 놓고 볼 때는 무엇이 중하다, 경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국헌을 문란케 한 하나의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 드러냅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전망 그리고 녹취록, 녹음파일 다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쟁여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이광희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어쨌든 비상계엄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내란죄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죄 수괴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과 함께 불법 비상계엄을 논의한 내란 모의 회의에 대한 자료, 12월 3일부터 4일까지의 국무회의록, 이것은 국무회의 규정 제11조에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장관은 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위원·배석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그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란죄에 가담한 경찰청에서 서울청과 국회경비대에게 지시한 무전기록 일체, 특히 3일부터 4일까지 국회의원들을 제지하고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게 했었던 자료와 관련돼서 첫 번째는 그 무전기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국회경비단이 촬영한 채증 영상과 기록물 일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세 번째는 경비대가 국회 안팎에서 수행한 모든 기록물 일체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김종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종양 위원 초반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 운영이 상당히 격앙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위원장님이 오늘 의사진행을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도중에 끼어들어 가지고 발언을 방해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특히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엄하게 진행을 시켜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몇 분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벌써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내란죄라고 그렇게 확신을, 확인을 하고 또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나온 그런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회의를 하는 이유는 상황이 무엇이 있고 과연 무슨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위법성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데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고 오늘 증인으로 나와 있는 분을 공범 등등 이렇게 단정하고 시작하면 사실 의사진행이 제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되살릴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불법적이냐, 아니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판단을 할 거고요. 이미 진행된, 치러진 그런 상황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서 제가 경찰의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지했다고 그래 가지고 왜 경찰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느냐 그런 식으로 제가 추궁을 당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법성 여부의 판단은 경찰이 하고 지금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불법성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미리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과연 위법적인지 아닌지를 오늘 서로 간에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된 것이 국회에 대한 경고다 그리고 한밤중의 해프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엄을 가지고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장난치는 행위인 거지요. 정말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장난을 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장난 정도가 아니라 내란의 수괴로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여러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은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을 방조하고 함께 공모한 공모자들이라는 기본적 판단에서 오늘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관련되어진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게 경찰청, 서울청 그리고 국회경비대 간에 연락한 서신 또는 무전 연락 관련되어진 내용을 주

시고요. 두 번째로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청, 영등포서 등 관련된 무전망 녹취록을 져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이상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경찰청에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희 위원님으로부터 이번 현안질의의 계기가 된 비상계엄령의 취지문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먼저 듣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장관님이 보고 말씀하실 때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상계엄을 발표한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에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이런 취지하에 비상계엄이 단행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나 청장, 직접적으로 이 부분들 다 동의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각료로서 또 국가공무원으로서 이런 비상계엄의 주무 또 실행 행정관청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먼저 그런 반국가세력으로서 국회를 규정하고 시행된 비상계엄령인 만큼 거기에 대한 입장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보고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장님, 제가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께서 쓰신 표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계신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김성희 위원 사과를 하고 시작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현일 위원 뭘 신중하라 합니까?

○모경종 위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뭘 신중히 얘기합니까?

○용혜인 위원 계엄령이 신중하지 않았는데 뭐가 신중히 해요!

○윤건영 위원 무슨 말을 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내란의 피의자를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장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정춘생 위원 지금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겁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한 거지요.

○위원장 신정훈 여하튼 장관의 인식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질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입니다.

먼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행정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현 정국 상황과 관련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상황을 염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염중한 시기인 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과 국민안전 확보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엄 선포 전후의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선포 후인 12월 4일 00시부터 00시 30분경에 장관 주재로 실국장급 간부회의를 개최했고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정상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특히 재난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이라든지 입장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회의록은 통상 국무회의 마친 날로부터 일주일 내지 10일 후에 공개가 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행정안전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일주일 이전으로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 과정 가운데서 반국가단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결국은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단어에 대한 저의 평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님이 쓰신 워딩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장관께서는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계기, 취지 모르시는 겁니까? 보고의 말씀 하시면서 이렇게 염중히 인식하고만 있습니까? 국민에게 하실 말씀이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을 변호하고 싶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가 나올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대통령의 계엄 담화문의 내용에 반국가세력으로 국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구절이 다섯 번 이상 나와요. 대통령을 변호하고 싶으면서 국민들의 이 우려에 대해서,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꼭 반박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좀 더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은 없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신정훈** 그 말 한마디를 못 넣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본질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박정현 위원** 아니요, 먼저 사과부터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질문 과정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대통령에 대한 변호는 하시면서 국민에 대한 각료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해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과 걱정, 우려를 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질문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은 조치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둬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지호 경찰청장 나오셔서 보고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말씀해 주시기 전에요 형용사 같은 것 필요 없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경찰청은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경찰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 개요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찰의 조치사항입니다.

당시 현장은 서울경찰청장이 총괄 지휘하였고 국회 상황에 따라서 우리 경찰력을 순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시간대별 조치사항입니다.

22시 28분 대통령 담화 후 서울청장에게 국회 주변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서울경찰청은 5개 기동대를 배치하였습니다.

22시 46분 경찰청의 안전조치 강구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에서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다가 23시 06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등은 신분 확인 후 출입조치하였고 23시 37분 비상계엄 포고령에 따라 다시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12월 4일 자정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고 00시 46분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습니다.

당일 01시 45분에는 국회사무총장 요청에 따라 국회 관계자는 출입통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그 말밖에 하실 말이 없어요?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우선은 서울청장까지 듣고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장 나오셔서 기관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 이번 상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당일 대통령 담화문 발표와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회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관리 중인 5개 부대를 22시 35분경부터 국회 주변에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22시 46분경에는 국회 내에 인파들이 모여들고 월담 등 돌발 상황이 예상되어 내부로 이동하려는 인파들을 일시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의원들께서 시위대, 인파에 섞여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3시 06분부터 국회의원들과 보좌관 등 국회 관계자는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으며 현장에서 일체의 폭력과 물리적 마찰이 없도록 강조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계엄사의 포고령이 공포되었고 본청으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아 23시 37분경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습니다.

익일 01시 01분경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국회사무총장의 요구에 따라 01시 45분경부터 국회 관계자는 다시 출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경내에 남아 있는 군과의 마찰이 우려되어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인은 출입을 지속 통제하였습니다.

국회 주변 최대 4100여 명까지 집결했던 인파가 계엄 해제 의결 후 인원이 점차 감소하였고 내부 상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되어 국회 주변에 배치된 기동대를 03시경부터 순차적으로 철수시켜 03시 24분경에는 총 12개 부대로 국회 주변 질서 유지를 하였습니다.

04시 기준으로 여전히 인파 800여 명이 국회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 차로 확보를 시작하였고 07시경 국회 앞 도로와 정문 주변에 있던 180명을 인도로 이동토록 유도하며 07시 20분경부터 교통 소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어서 국회경비대가 정문 2개를 모두 개방하여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송구하지만 우리 경찰은 그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정현 위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시민들이 안 다쳐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다쳤는데!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정현 위원** 뭔 노력을 해요! 국회의원 진입을 막아 놓고!

○**이광희 위원** 내가 당사자예요, 내가. 내가 당한 사람이야!

○**박정현 위원** 저도 다쳤습니다!

○**정춘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을 이 정도로 하고요.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선관위 사무총장까지 이야기 듣고 1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나오셔서 보고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진행경과, 중앙위원회 계엄군 투입 현황, 계엄군 활동 및 점거 현황, 위원회 조치사항 순입니다.

진행경과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22시 24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22시 30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되었고 같은 시각 경찰 10여 명이 청사 밖의 정문 출입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3시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포고문이 발령되었습니다. 23시 50분 경찰 90여 명이 추가로 투입되어 청사 밖 버스차량에서 대기하였으며, 12월 4일 수요일 00시 30분 계엄군 100여 명이 추가로 청사 내에 투입되었습니다. 01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01시 50분 계엄군이 완전 철수하였습니다. 04시 30분 계

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07시 경찰이 철수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계엄군 투입 현황은 지금 안내해 드린 1쪽 하단 표와 같습니다.

계엄군 활동 및 점거 현황입니다.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여 명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감시 및 청사 출입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작전만 실시하였으며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조치사항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23시 30분 중앙위원회 시설과장 등 3명이 청사 밖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12월 4일 수요일 00시 40분 시설과장 등 2명이 청사 내로 진입하여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출입을 허가받은 이유는 국가지도통신망 수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01시 50분경 계엄군이 완전 철수하여 피해상황 등을 파악한 바 피해상황은 없었습니다. 09시 30분 중앙위원회 간부회의가 소집되어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먼저 정춘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저는 기관의 허위보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청장 기관보고에 의하면 11시 6분경부터 의원·관계자 신분 확인한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이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왔는데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 경비대원이 저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언성을 높여서 확인을 했고 겨우겨우 저만 들어왔습니다. 보좌관은 못 들어왔어요, 의원만 신분 확인 후 들여보내겠다. 그런데 여기는 신분 확인 후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했지만 이것 거짓보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11시 37분경부터 포고령 확인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이때 들어오려고 하는 시민들이 무전 내용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주변에서. ‘명하나 지침, 명하나 지침’ 계속 그런 소리를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명하나 지침이 뭐냐’ 이런 것을 물어 왔거든요. 그 ‘명하나’를 지칭하는 게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모의를 해서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서 서울청장이 통제를 지시했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가 봤을 때는, 나는 서울청장이 경찰청장 패싱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진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초갑 조은희 위원입니다.

당혹스러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또 집권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책임과 진상 규명을 위해 저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야당에서는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현안질의를 왜 하는가, 국회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논리라면 헌법재판소의 존재도 불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 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먼저 단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은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면 헌법재판소에 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사태와 진상 규명을 위한 현안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한동훈 대표가 위헌·위법하다고 한 계엄입니다. 그것은 곧 내란인 거지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당 대표가 위헌·위법하다고 했는데, 그 당 대표가 지금도 살아 있는데 그것에 어떻게 반하는 얘기를 합니까, 국회의원들께서?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김종양 위원** 아니, 당 대표가 하는 것도 그것을 갖다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위성곤 위원** 무슨 각자의 판단이에요? 역사의 현장이에요, 지금.

○**용혜인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각자의 판단을 얘기하게 좀 내버려두세요.

○**김종양 위원** 아니, 지금 의사진행하는데 왜 그렇게 방해를, 톡톡 튀어나오고 그래요?

○**윤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끝나고 이야기하신 거고요.

○**위성곤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역사를 지키는 자리예요.

○**김종양 위원** 역사를, 어떤 의미가 있든지 간에 의사진행을 따라야……

○**정춘생 위원** 지금이 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위성곤 위원** 만약에 계엄세력이 여기를 장악했다면 회의도 못 하게 됐어요.

○**윤건영 위원** 두둔하실 걸 하세요, 제발.

○**정춘생 위원** 이상한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이게 됩니까, 지금?

○**김종양 위원** 아니, 이야기를 좀 들어 보세요. 나중에 의사진행 할 때……

○**윤건영 위원**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성곤 위원** 여당 위원들이 국회의원의 양심을 가져야 돼요.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정춘생 위원** 국회의원이 국회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지금 이게 뭐니까?

○**위원장 신정훈**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위원장님,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진행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대체 국민은 어디 있고……

○**정춘생 위원**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될 상황이냐고요, 지금이.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정춘생 위원**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국회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자,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이렇게……

○**김종양 위원** 나중에 본인 질의 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질의 시간 순서를 배정하고 있는데……

○**이광희 위원** 그만하세요, 김종양 위원님.

○**위원장 신정훈** 질의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작금의 사태는 국민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되기 힘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냉정한 심정으로 또 냉정을 찾으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직전에 네 분, 장관님과 청장 두 분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안질의의 내용은 장관이나 청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긴박한 시간에 국가권력이 어떻게 행사됐는지를 검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회의록과 통신기록, 무전기록 또 관련한 자료까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라는 것이 최소한 아무리 물리적으로 하더라도 오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10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는 것은 현안질의에 참석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성곤 위원** 예, 퇴장하십시오.

○**용혜인 위원** 질문하실 게 없겠지요, 잘못된 계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도망갈 구실 찾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 아니, 공동정범들 아니에요? 조은희 위원님도 공동정범이 아닙니까?

○**김종양 위원** 말을 함부로 하세요, 위원한테 공동정범이라니.

○**이광희 위원** 김종양 위원도 마찬가지야! 지금 비상계엄을……

○**용혜인 위원**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엄을 함부로 하신 거지요!

- 위원장 신정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 조은희 위원 저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 김종양 위원 우리 각자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공동정범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하신 것 아니에요?
- 조은희 위원 저희들은 더 이상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광희 위원 그렇게 할 말 없으면 나가시라고!
- 위원장 신정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 이광희 위원 아니, 그냥 나가시라니까?
- 조은희 위원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 좀 제지해 주세요.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지.
- 이광희 위원 뭐가 말을 함부로 합니까?
- 김종양 위원 아니, 저도 이번 비상사태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를 않고 있어요.
-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들, 위원님들! 위원장의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 조은희 위원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정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이광희 위원 동의의 문제입니까, 이게? 심지어는 위협을 당한 사람들에게 동의를……
- 김종양 위원 정말 참 톡톡거리면서 진짜…… 정회 좀 해 주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 이광희 위원 무슨 정회입니까? 정회하면 안 됩니다.
-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양 위원 아니, 좀 분위기를 가라앉혀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윤건영 위원 정회하지 마십시오, 정회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윤건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 위성곤 위원 여당 의원님들은 국민의당 당사에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야당 의원님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부대가 총을 들고 들어온 현장에 있었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고요.
-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중단해 주세요. 중단해 주시라고.
- 김종양 위원 저도 와 가지고 두 번이나 못 들어와 가지고 쫓겨났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부로? 그런 상황을 다 들어 봐야지.
- 윤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조은희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윤건영 위원님까지 듣고.
-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왜 그냥 놔 두세요? 왜 가만히 놔 두세요? 국회의원이 국회를 못 들어오는 상황을 왜 가만 놔 두냐고요, 항의를 하셔야지.
- 위원장 신정훈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 박정현 위원 우리는 들어왔는데 왜 못 들어옵니까?
- 모경종 위원 뭘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 게 자랑이세요?
- 위원장 신정훈 박정현 위원님, 김종양 위원님!
- (장내 소란)
- 이광희 위원 지금 부끄러운 줄 아세요!

- 박정현 위원 무슨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까?
- 조은희 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김종양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사실?
- 윤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윤건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까지만 듣겠습니다.
- 모경종 위원 못 들어오게 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셔야지.

(일부 위원 퇴장)

- 위원장 신정훈 듣고 가세요! 위원님!
- 윤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정춘생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지금!
- 이광희 위원 들어오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 김종양 위원 오만하면 안 됩니다, 오만하면 안 돼.
- 모경종 위원 뭘 도발하면 안 됩니까? 앉으세요!
- 김종양 위원 아니, 오만하면 안 된다고.
- 위원장 신정훈 아니, 의사진행발언 듣고 가세요.
- 용혜인 위원 왜 도망가십니까?
- 정춘생 위원 국회가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는 겁니다!
- 이광희 위원 빨리 앉으세요! 아니, 얘기를, 의견을 듣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자, 의사진행발언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양 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정회하다가…… 저희들도 이 회의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합니다.
- 윤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성곤 위원 여당은 국민에 대해서 전혀 예의가 없어요. 국민을 보호할 생각이 없어요.
- 김종양 위원 자, 하세요, 하세요. 내가 들을게요.
- 윤건영 위원 김종양 위원님, 앉아서 들어 주세요.
- 위성곤 위원 자신의 권력을만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좋은 자리 줍니까?
- 김종양 위원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또……
- 위원장 신정훈 자, 위성곤 위원님, 조금 더 냉정을 찾아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 진실과 또 이 회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건영 위원 김종양 위원님, 끝까지 상임위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임위는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윤석열에 의한 쿠데타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당 위원님들이 미리 약속이나 하신 것처럼 자리를 뜨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당 간사께서 어디론가 연락을 받고 나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전원 퇴장을 유도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러저러한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당 위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을 향해서 군이 작전을 펼치고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사건입니다. 어물쩍하게 덮어 주거나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부정되는 쿠데타가 벌어진 사건이고 그 쿠데타에 동조한 세력인 경찰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따져 묻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싸 주려고 하십니까? 내란죄가 그렇게 아픕니까?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내란죄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감싸 주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를 뜨신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정회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애당만이라도 경찰의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동조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야 됩니다.

○**김종양 위원** 저도 위원입니다. 발언 시간을 좀 지켜 주세요.

○**윤건영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세요! 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김종양 위원** 발언 2분씩인데…… 나는 진짜 이야기했어요. 이것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윤건영 위원** 제 이야기 들으시라고요! 제 이야기 들으시라고! 변명하려고 남지 마세요. 다 나가 놓고 뭐 합니까, 지금?

○**김종양 위원** 나는 위원 아닙니까?

○**윤건영 위원** 제 이야기 중에 왜 발언을 하시냐고 항의합니다.

○**김종양 위원** 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말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이야기해.

○**윤건영 위원** 제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그렇지요.

○**김종양 위원** 왜 안 들어요? 내가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이야기를 했는데.

○**윤건영 위원** 지금 국민의힘 행태가 제대로 된 행태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짓이 제대로 된 행태냐고요!

○**김종양 위원** 그렇게 단정하고 오만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위원장 신정훈** 자, 윤건영 위원님.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정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적인 의혹과 국민적인 우려를 근거로 해서 본 회의가 열렸습니다. 계엄 포고령이 막 발령되었을 때 민주당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국힘당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 의원님까지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이번 계엄은 도저히 국민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이게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또 이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그런 회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양 위원 잠깐 1분만 의사진행, 혼자 남았으니까……

○위원장 신정훈 김종양 위원님,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조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김종양 위원 아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1분만 제가 이야기하고 갈게요. 1분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신정훈 똑같은 말씀 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김종양 위원 1분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윤건영 위원님한테 말씀을 좀, 의사진행을 드렸으니까……

○정춘생 위원 질의 시작하시지요.

○김종양 위원 아니, 1분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1분만. 신상발언일 수도 있고요.

○위원장 신정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는……

○김종양 위원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때 저도……

○윤건영 위원 위원장 진행에 따라 주세요.

○김종양 위원 예, 알았어요.

저도 그때 4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위성곤 위원 4시에요?

○정춘생 위원 우리가 다 해제 결의한 다음에 들어오셨네.

○김종양 위원 처음에 왔을 때 제지를 해 가지고 나갔다가 그때는 도저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김종양 위원 그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용혜인 위원 그만하세요.

○김종양 위원 듣지도 않고 말이야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용혜인 위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위원장 신정훈 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4시에 들어와 놓고 다 끝나고……

○위원장 신정훈 김종양 위원님도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말씀드렸고요.

○김종양 위원 마음대로, 자기하고 행동과 말이 똑같지 않았다고 그래서 상대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각자의 생각이 있고 그런 건데……

○용혜인 위원 그만하시라고요.

○위원장 신정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왜 나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나가시지……

○김종양 위원 내 판단이지.

○이광희 위원 나가시지 마시라고.

○위원장 신정훈 김종양 위원님.

○김종양 위원 왜 내가 이광희 위원 이야기를 따라야 돼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이광희 위원** 국회의원이 당연히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란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종양 위원** 말 가려서 해! 공동정범이라니.

○**이광희 위원** 공동정범이지!

○**김종양 위원** 나쁜 사람 말이야.....

○**이광희 위원** 당신들이 비상계엄을.....

○**김종양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이광희 위원** 당신들이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 아니야, 사실상.

○**김종양 위원** 뭘 옹호했어!

○**위원장 신정훈** 앉아 주세요.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그 시간에 안 들어가고 다른 데 있었어요? 그래 놓고 4시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지금!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김종양 위원** 그러면 민주당의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공동정범이에요?

○**위원장 신정훈** 두 분 위원님. 김종양 위원님.....

○**김종양 위원** 당신들 그때 190명 다 들어왔어요?

○**이광희 위원** 당사 말고..... 앉아서 얘기하셔라.....

○**모경종 위원** 적어도 밖에 당사에서 대기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다 어떻게든 기를 쓰고 들어왔지.

○**박정현 위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하는 겁니다. 왜 당사에 계십니까? 계엄을 막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야지요.

○**이광희 위원** 위원님, 나가시지 마시고. 김종양 위원님, 앉으세요, 회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래, 내가.....

○**위원장 신정훈** 김종양 위원님.

○**이광희 위원** 앉으셔, 앉으셔요.

○**위원장 신정훈** 앉으세요.

○**김종양 위원** 회의 진행을 잘하세요.

○**이광희 위원** 나가지 말고 앉으시라니까.....

○**위원장 신정훈** 앉아서 좀 들어 주세요.

○**윤건영 위원** 회의 진행 잘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그렇게 나갈 거면서 왜 발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정훈** 국민의 이야기를 좀 들어 주세요.

○**윤건영 위원** 비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개인 신상 얘기를 왜 하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지.

들어오세요, 얼른, 김종양 위원님!

○**김종양 위원** 더불어서 해, 더.....

○**이광희 위원** 들어오시.....

○김종양 위원 좀 이따 들어올게.

○용혜인 위원 장난하십니까.

(김종양 위원 퇴장)

○위원장 신정훈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회의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일부 위원님들께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용인갑 이상식 위원입니다.

45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비상계엄…… 아니, 내란 혐의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이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종북·반국가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 척결은 군소관입니까, 아니면 경찰이 담당하겠습니까? 이것은 전쟁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지요. 내치니까 경찰이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원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국가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식 위원 예, 총체적인 반국가세력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번 내란 혐의에 대해서, 내란 모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특히 지금 장관님이 답변하시는 이런 모호성을 해결하고 강력하게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서 준비해 온 정황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6월 28일 여인형 방첩사령부 사령관하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협약서 체결했습니다. 장관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 교류', '수사 협조' 이게 나와 있거든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이상식 위원 저는 이런 게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해서 이게 내란을 모의했다 이런 생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당무계한 일들이, 처음에 김용현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쿠데타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황당무계한 일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방첩사령부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이렇게 공조하게 됐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옛날에 전두환 시절의 군경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가 생각 나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또 경찰에 재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찰로 이관됐기 때문에 군경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모의를,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 왔다 저는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거기다가 장관님도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봄에…… 이분이 충암고 후배입니까, 선배입니까? 여인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후배입니다.

○이상식 위원 예, 방첩사령관하고 그 후배들을 불러 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거기에 후배는 여인형 사령관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이 정부의, 45년 만에 발생한 내란 모의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학계에서 봇물처럼, 법조계에서 쏟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견강부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식 위원 장관님, 지금 장관님 웃으시면서 답변하시는 데 옛날에 김용현 장관도 그랬습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식 위원 12월 3일 국무회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그때 회의록 줄 수 없다고 장관님 이야기했는데 그때 참가했던 장관과 참가하지 않았던 장관 알고 있습니까?

뒤에 의정관 출석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통상 회의록이 일주일 내지 열흘 걸려서 공고가 되는데……

○이상식 위원 장관님, 지금 회의록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석한 장관님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상식 위원 여기에 지금 참석 확인된 분이 일곱 분, 불참 확인된 분이 다섯 분, 그런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장관들이 지금 다섯 명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 유상임 과기정통, 강정애 국가보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 오영주 중기벤처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요 회의록이 공고가 되면, 공표가 되면 당연히 알게 될 사항입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그것을 회의록을 꼭 공표해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의정관 어디에 계십니까? 일어서 보세요.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예, 의정관 김한수입니다.

○이상식 위원 이분들 중에 누가 참석했고 누가 참석 안 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저희가 회의를 주관하지 않아서……

○이상식 위원 아니, 회의를 주관하지 않아도 의정관이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확인 중에 있다고요?

○위원장 신정훈 마이크 주세요.

○이상식 위원 저는 장관님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이게 지금 자기들이 내란 동참했다는 그런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기 싫어 가지고 답변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상식 위원 그것은 장관님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어차피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 다 밝혀질 내용인데 그것을 비밀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식 위원 그런데 밝혀질 내용인데 왜 장관님 스스로 확인을 안 하고 있느냐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밝혔고요. 다른 장관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상식 위원 조지호 청장님, 조지호 청장은 11시 37분에 국회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맞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 근거가 됩니까? 포고령 제1호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조지호 청장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하고 헌법 중에서 어느 것よりも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당연히 헌법의 수임을 받아서 포고령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상식 위원 짧게 하십시오.

헌법 제77조 계엄의 요건·해제, 국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당으로 가는 것을 경찰이 통제했다, 이것은 분명한 국가 헌법기관의 권능을 방해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이것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염숙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런데 계엄이 선포가 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이상식 위원 우리 선서할 때 경찰관은 뭐라고 합니까? 헌법과 법률이 경찰이 지켜야 될 가장 최상의 규범 아닙니까? 그런데 포고령……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포고령 자체에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 것 청장, 알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런데 그것을……

○이상식 위원 한번 들어 보세요.

계엄이 내려지면 입법부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법에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작용은 일시 제약을 가할 수 있지만 입법부의 활동, 국회 활동에는 어떠한 제약도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 포고령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위법인데 여기에 경찰청장이 순응해, 근거를 해 가지고 경찰의 병력을 대거 동원해서 국회 정문을 막고 국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방해했다. 저는 이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이……

○이상식 위원 청장은 지금 변명할지도 몰라요. 청장하고 지금 서울경찰청장 변명할 수 있지만 그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당일 날 울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 전에 김장행사가 있었고요. 이어서 있었습니다.

○이해식 위원 거기에 참석을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 회의가 한 4시 20분 정도 열렸다고 언론 보도에 났던데 제가 알기로 장관님께서 회의를 마치지 않고 아주 급거 서울로 상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그때 최초로 국무회의가 소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왜 급거 떴습니까, 그 뒤에 정리 발언도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해식 위원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이해식 위원 대통령실로부터 그런 연락이 온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해식 위원 아니, 그게 왜, 뭘 곤란한 얘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일정별로 준비를 하다가요, 제가 원래 9시경 비행기로 올라오려고 되어 있었는데……

○이해식 위원 KTX를 타셨다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좀 일찍 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하라 해 가지고……

○이해식 위원 서울에 언제 도착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서울에 8시 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바로 대통령실로 가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래서 올라오는 와중에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차에서.

○**이해식 위원** 그러면 국무회의가 소집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들어오라고 정보만 알고 가신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들어가서 국무회의가 소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국무회의는 몇 시부터 열렸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가니까 장관님들하고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대통령님을 봤더니 계엄을 선포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식 위원** 따로 정식 회의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요. 그런 다음에 계속 장관님들이 속속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10시 좀 넘어서 성원이 됐다. 그래서……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따로 대통령과 독대를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장관들 몇 분 모여 계신 데서 일단 계엄령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요. 계속 이야기를, 장관들끼리도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10시쯤 공식 회의가 있었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해식 위원** 그런데 10시에 원래 언론 브리핑 예정돼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언론 브리핑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장관들이 다 그때까지 성원이 안 된 겁니다, 국무회의 성원이. 그래서 계속 발표를 늦춘……

○**이해식 위원** 그리고 나서 그러면 20분 정도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하신 거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표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어떤 의견을 표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개별 장관들이 여러 의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해식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견 표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찬성한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일단 그 자리는요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해식 위원** 물론 심의인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통령님께서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장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이해식 위원** 염청난 결정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너무 놀랐고 자기도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 를 했던 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자리에 놀라지 않은 장관이 있었겠습니까, 다 놀랐지요.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고 대통령님께 이게 안 된다라고 진언을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을 개별적인 의견을 다 말씀드리기 제가 곤란하고요.

○**이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요. 그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제 발언이나 이런 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게 역사예요.

○**모경종 위원** 회의록에 다 나와요.

○**이해식 위원** 회의록에 나온다면서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회의록은 잘 아시다시피 요지를 기재하게 돼 있는 거고요. 개별 사람의 진술을 그냥 그대로 워드 투 워드(word to word)로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식 위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엄령과 관련해서 행안부장관께서 어떤 의견 표명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지요.

○**이해식 위원** 우려를 표명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누구누구였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거기서 찬성, 반대가 있지는 않았고요.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 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서 다 우려를 표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이지 찬성, 반대를 표시하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식 위원** 국방부장관 외에는 그러면 다 우려를 표명한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방부장관님도 왜 우려가 없으셨겠습니까,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해식 위원** 국방부장관은 건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건의하신 분이지만 건의를 해도 여러 가지 우려는 한 거고……

○**이해식 위원** 건의를 했음에도 우려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 상황에서, 그 상황……

○**이해식 위원**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우려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어떻게요?

○**이해식 위원**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우려했다는 취지로 들린다고요, 장관님 말씀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정도 공식 회의를 한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런 다음에 대통령님께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셨고.

그런 말씀도 계셨어요.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 그리고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해식 위원** 다 수긍을 하신 겁니까, 그 말씀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말씀을 저희가……

○**이해식 위원** 국무위원들께서 수긍하지는 않았겠지요. 여전히 우려가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우려는 있었고요.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최초에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계엄령 선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제 개인적 부분은, 잠깐 누웠다가 깨는 바람에 한 11시쯤인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

○**이해식 위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해식 위원** 11시쯤 깨셔서 뉴스를 보고 알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텔레비전을 보던 집사람이 얘기를 해 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식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시 23분경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불과 6분, 7분 만에 중앙선관위 청사 내에 10명의 계엄군이 투입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바로 무단으로 침입을 한 겁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결국은 그렇게 된 거고요.

○**이해식 위원** 이것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현장 상황에서 시설과장이 그것에 앞서서 TV를 보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주요 당직자들, 그러니까 주요 실·국장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연락이 왔는데, 잠깐만…… 지금 제가 통화를 보면 11시 56분하고 12시 이 부근에 우리 시설과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깨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보고를 받으셨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해식 위원** 그런데요 어떻게, 의견 표명하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의견 표명이라는 것은……

○**이해식 위원** 그냥 순순히 수긍을 하신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이해식 위원** 헌법기관에 군인들이 무단으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사 출신 아니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해식 위원 포고령이나 이런 것 다 확인하신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확인은 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그 포고령 자체가 요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포고령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니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과천청사에 110명의 군인이 추가로 투입이 되고, 120명이 투입이 됐어요. 선거연수원에는 130명 그리고 관악청사에 47명. 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많이 투입이 됐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도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계엄 부분을 보면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업무가 이관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계엄군이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식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당일 날 CCTV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해식 위원 CCTV 기록을 보존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된 계엄군은 경계근무만 하고 갔다, 경계작전만 수행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CCTV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국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법적 절차에 맞게끔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내부 CCTV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중언……

○이해식 위원 얼굴이나 이런 것 가려도 좋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그냥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위원회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의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해식 위원 의결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게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사본 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위원장님, 의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관련해서 행정실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 목록을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장관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국무회의가 심의 기능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심의 기능의 회의 충족하는 정족수라는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가 재적위원의 과반이 모여야지 개의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국무회의 기록은 기록으로만 남습니까, 영상이나 녹취나 이런 게 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녹취는 없을 테고요. 기록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장관님들의 찬반 이런 부분까지를 다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참석은 확인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것은 숨길 이유가 전혀 없고요. 회의록에 당연히 명시가 됩니다, 참석자가.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 개최 이후에 7일 내지 열흘이 걸립니다. 그것을 최대한 당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 신정훈 여기서 지금 확인해 줄 수 없습니까? 참석된 각료들의 명단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데 아까 이해식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들이 참석 여부를 안 밝힌다고 한다면 제가 밝히는 건 큰 결례……

○위원장 신정훈 아니,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 심의정족수인데…… 그분들이 발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국무회의가 열렸고 또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고 그 충족된 숫자가 11명이라고 언론에서는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 문제, 계엄령을 심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무회의가 열렸고 그 열린 내용에 있어서 참여한, 최소한 충족 요건에 해당되는 11명의 명단이 누구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회의록에 당연히 기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의정관이……

○위원장 신정훈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장관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본인이 안 밝히는데 제가 밝힐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지금 이 국무회의를 최종적으로 관할하는 장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긴 한데요. 회의록에 의해서 공개하는 건 상관없지만 본인들이 안 밝히는데 제가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국무회의가 어디 대간첩작전 회의하는 겁니까? 국가정보원 회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을 통해서 밝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인들이 안 밝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지금 이 자리……

장관님, 법적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가 계엄령을 가지고 그 진행 절차, 과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용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참석자 이야기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걸 못 하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제가 저 자신은 당연히 밝혔고요. 다른 장관들은 본인이 싫다는데……

○위원장 신정훈 장관이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는 것이 어떤 법률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여부를 묻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지요.

○위원장 신정훈 저희는 지금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열한 분일 겁니다. 제가 정확히 세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열한 분일 겁니다, 열한 분.

○위원장 신정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조지호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의 죄이고 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합니다. 저는 입법권자로서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조지호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용혜인 위원 동의하지 않으신다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

○용혜인 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그게 사법적인 판단의 영역입니다.

○용혜인 위원 제가 대법원 판례도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96도3376,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등 일련의 행위는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는 전원합의체 판결. 12·12 군사반란입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바 내란죄이고 국헌문란죄이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경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던 이 12·12 반란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이건 내란죄 맞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면 어제 12월 3일에 경찰이 했던 동일한 행위는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저희들이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혜인 위원 내란입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그건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용혜인 위원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같은 행동 아닙니다.

○용혜인 위원 12·12 군사반란은 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를 전에 이곳 국회에서처럼 군경이 국회의원의 헌법적 기능을 가로막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합의한 사법 정의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12월 3일에 동일한 내란의 범죄가 다시 한번 발생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지금 이곳 국회에서 경찰의 책임자라는 분이 그것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12월 3일에 했던 행동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부정하시는 겁니다, 청장님 지금.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용혜인 위원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시는 거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사법부의 판단에 기초해서 볼 때 저희들의 지난 12월 3일 날의……

○용혜인 위원 대한민국의 경찰 책임자들이 군부독재 시절의 반민주적이고……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권 행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혜인 위원 들으세요!

반헌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공부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그것에 따라서 경찰이 민주경찰이 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경찰에서 제출한 보고 자료도 참 가관인데요. 23시 37분, 포고령 확인 후에 국회 출입 통제하셨습니다. 이것을 아까 보고하실 때도 포고령 1호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셨어요.

대한민국 경찰이 따라야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입니다, 아니면 권력자의 지시사항입니다까?

○경찰청장 조지호 당연히 헌법과 법률입니다.

○용혜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2월 3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계엄법 살펴보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용혜인 위원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에는 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도대체 그날 군사상의 무슨 필요가 있었길래 정치적 활동 자체도 제약하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제한합니까? 그 필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계엄사로부터 들은 이유 있으십니까? 설명 들으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계엄사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용혜인 위원 아니요, 설명 들으셨냐고요.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조항인데 어떤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들으셨냐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계엄사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발령된 계엄입니다.

○용혜인 위원 설명 듣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백번 양보해서 저기 어디에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포고령은 위헌이고 위법한 거예요. 그리고 위법하고 위헌적인 지시를 따른 부하 직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

87도2358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 행위가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96도3376 12·12 군사반란,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이 포고령 자체가 위법하고 위헌하다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침을 이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찰청장의 지난 12월 3일의 행태가 위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요. 12·12 군사반란의 가담자들이랑 똑같이 위반한 것입니다. 12월 3일 밤, 왜 경찰이 국회를 막아야 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용혜인 위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유는 모르겠다?

○경찰청장 조지호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용혜인 위원 그러니까요. 요청이 있고 지시가 있어서 그냥 그것을 수행했다라는 것 같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이……

○용혜인 위원 수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그날 현장을 다 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못 하게 하려고 한 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하기 전까지 경찰은 국회 출입 통제 풀지 않았어요. 국회의원들이 경찰 감시 피해 가고 담벼락 넘어가면서 겨우겨우 모여 가면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기에 망정이지, 당시에 조지호 청장이 바라던 대로 국회를 다 통제해서 그때 의결 못 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여기에 있는 다른 야당 위원들도 그리고 표결에 동참하려고 했던 여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한 명 한 명 다 잡혀 갔을 겁니다.

포고령에 따르면 ‘처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읽어 보셨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용혜인 위원 청장님, 포고령에 나와 있는 처단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그 포고령을 이행하신 겁니까? 처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 처단이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는……

○용혜인 위원 법적인 근거도 없는 조항이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용혜인 위원 그리고 처단은 일반적으로 쓰일 때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는 걸 이야기 하지요.

형법 87조 2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조지호 청장은 내란죄에 가담한 겁니다. 12·12 군사반란 때 정확하게 여기 있는 경찰들이 한 짓과 똑같은 내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 다 감옥 갔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황영시·허화평·이학봉 징역 8년, 주영복 징역 7년.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변명 통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실무자급 장교들도 당시에 다 유죄받았습니다.

내란죄에 가담한 조지호 청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이상민 장관, 서울경찰청장 다 사퇴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베틴다고 해도 재판받을 수밖에 없고 중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입니다.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어서 무법적인 포고령을 집행하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영역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이 종국적인 판단입니다.

○용혜인 위원 저는 참 끝까지 뻔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12월 3일 전까지는 계엄이라는 것을 겪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도 45년 전 12·12 군사 반란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장담하는데요 여기 앉아 있는, 내란죄에 가담한 모든 부역자들 다 45년 전 12·12 그 내란죄 부역자들과 똑같이 45년 후에도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청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단행된 계엄령, 담화문 그리고 포고령 그리고 그 조치에 의해서 경찰청에 시달린 내용 그리고 경찰청이 국회를 봉쇄하고, 무려 1시간 넘게 국회를 완전 봉쇄하고 전후에도 자유로운 출입을 상당 시간 금지했던 내용들이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가졌는지,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국회의 정치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잖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엄중한 조치를 한 당사자로서 이 포고령이 그리고 이 계엄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발령된 계엄령 그리고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포고령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청장, 지금 계엄법, 대한민국헌법 이것은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돼요. 강변하지 마세요. 강변하지 마시라고.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전적으로 판단이 잘못됐으면 사후적으로라도 제대로 좀 인식하세요. 자료를 내든지, 자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지금 답변으로 이것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더 엄중한 자세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참담합니다. 우리 국민은 엊그제 밤에 초현실적인 헌정 유린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헌법 준수, 국가 보위를 서약했던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 권능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내란죄의 수괴,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군을 앞세워 국회와 야당을 말살하고자 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탈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전복시키려 했습니다. 행안부장관과 청장은 지금 이 자리가 역사의 기록 현장이 될 겁니다. 있는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 그대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른 국사범, 내란죄 수괴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그 이유가 뭐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77조, 계엄법 2조,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데 그러한 상황이었나요, 그때 비상계엄 상황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고 그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채현일 위원 장관님, 아까 보니까 이해식 위원이 발언할 때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우려를 표명했다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 나중에 재판이나 그런 것을 의식하고 한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는 찬성, 반대를 명확히

게 표명했습니다. 장관님은 정확하게 찬성한 건지 반대한 건지를 한번 명확하게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자리에서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표현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반대’라는 워딩 자체를 하신 분이 한두 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전반적인 것은 이번 계엄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한 겁니다.

○**채현일 위원** 청장님, 대통령 비상계엄을 처음에 언제 알았나요?

○**경찰청장 조지호**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채현일 위원** 언론 통해서요. 그런데 대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채현일 위원** 그리고 나서,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바로 김봉식 서울청장께 전화를 했나요?

○**경찰청장 조지호** 바로 전화한 것은 아니고 저도 조금 당황스러워서……

○**채현일 위원**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데요?

○**경찰청장 조지호** 일단 첫 번째는 국회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채현일 위원** 왜 국회가 혼란스럽다고 단정을 했나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당연한…… 정치의 현장 1번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채현일 위원** 그것을 보낸 이유가, 경찰력을 보내고 한 이유가 보호를 위해서 한 겁니까, 봉쇄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일단 여기서는 경찰은 기본적으로……

○**채현일 위원** 봉쇄하라 그랬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공공 안녕과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예방을 한 겁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왜 국회의원과 보좌진, 관계자들이 출입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긴 거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저희들이 국회에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게 되면 안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채현일 위원** 왜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당연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채현일 위원** 아니, 헌법 77조의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가 대통령의 부당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권능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찰의 공권력을 해 가지고 봉쇄를 하고 방해를 하고, 그것은 내란죄의 공범으로서 정확하게 수행을 한 거라고 봅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국회의 기능을 못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면 실제로 의원님들 출입을 안 시키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광희 위원** 그래서 못 했어요.

○**모경종 위원** 안 시켰잖아요.

○이광희 위원 청장님, 그래서 못 했다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를 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서울청장이 건의를 해서 국회 상시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용했던 겁니다.

○위성곤 위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회의 방해죄야.

○채현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이 말했듯이 그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반란 때 공무원이라 해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해야 하고요 명령에 따라 범죄를 한 부하들도 똑같이 처벌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란죄로 누가 고발됐나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어제 오후 늦게 2건이 고발됐습니다.

○채현일 위원 누구누구 고발됐나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고발된 대상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군 계엄사령관, 국방부장관 또 대통령,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하고 기타 인력들입니다.

○채현일 위원 지금 그분들이 피해자로 입건이 됐나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어저께, 고발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채현일 위원 피의자인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KICS상으로는 입건은 되는 겁니다, 고발이 되면.

○채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수사 절차는 들어갔나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 절차가 들어갔나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어저께 최근 무렵에 2건이 접수됐고요. 저희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업무분장에 따라서 국수본 내에 있는 안보수사국 안보수사단에 일단 배당했습니다.

○채현일 위원 지금 이 내란죄라는 엄청난 국가 중대범죄입니다. 국사법이거든요. 이것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한 데서 본부장님이 정확한 의지가 있는 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말씀하신 대로 전례가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국수본에 있는 안수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중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언제쯤 가시적인 결과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나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수사가 무슨 농구 시합처럼 20분 시간을 정해 놓는 것은 아니고요. 수사가 하다 보면 단기간에 되는 것도 있고 일이 년씩 장기간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라고 물리적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한병도 위원입니다.

참,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계엄은 헌법적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런데 전 국민은 옳지 않은 통치행위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통치행위인 거지요. 저는 이 계엄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회복 불능 정권으로 들어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장이 담벼락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말 대통령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국회를 마치 범죄자의 소굴이라고 행정부 수반이 표현을 합니다. 그 인식의 기반이 뭔지,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또 다른 한편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정말 국민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판단이고요. 그래서 정말 2024년 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창피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버렸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일제 식민통치, 6·25 전쟁 이후에 세계 최고 가난한 국가에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루한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자랑했던 대한민국 아닙니까? 수많은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서 목숨을 잃고 이룩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촛불로 상징되는,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 평화 국가로 인정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많은 국민들이 노력을 해서 세계적으로 독특한 한류 문화를 형성해서 정말 우리 국민 모두 다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이 윤석열이라는 한 분 때문에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봤는데 무장한 특수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하고 총을 들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 법리? 법치? 그 모습 자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과 세계 민주시민들은 그 모습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여러분? 총을 차고 총알을 들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을 한다, 이게 고도의 통치행위다, 국가가 현재 그 정도로 혼란스러운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한 국가 아닙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룩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계엄을 선포할 그런 나라이다? 그것을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현재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무능하다,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봅니다. 야당을 이렇게 하는 게요, 이것 정말 실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무능하다, 야당 탓하는 것은.

집권 여당이요 남 탓 한두 번 하면…… 이제 그만해도 돼요.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요. 저희 그때 120석이었습니다. 야당 의석이 173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느 야당이 여당이 뭐 한다고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해 줍니까, 여러분? 않지요.

저 국회 와서 살았습니다. 초선 의원, 위원장, 안 되면 만나서 읍소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열을 하면요 셋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야당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정치는 갈등도 하고 싸우고 이런 협의들을 거쳐서 국정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해요, 국민들 상대로? 국민 가슴에 총을 겨누는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게 정말 너무 처참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법리 이야기 하시는데요. 저는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계엄 사태는, 현재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분, 참여·가담하신 분들 이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심판, 법적 심판은…… 여러분들이 법적 판단을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그런 판단 시간은 곧 현실이 됩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서 법리 따져 보니까 이렇고 계엄법 몇 조, 몇 조, 국회에서 주장하는 법리 이렇다, 그렇게 훌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수많은 역사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법적인 판단도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거 탄핵소추 문제 결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이 계엄을 통해 가지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통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놀랐던 게……

목현태 총경님 나오셨나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예.

○한병도 위원 국회 경비대장 아니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맞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았습니까, 단순하게 물어보면?

○위원장 신정훈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한병도 위원 장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으로 계엄을 했고 또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77조에 따라서 그걸 해제할 권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려 국회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맞습니다.

○한병도 위원 왜 막아요?

그때 누가 지시했습니까? 누구 전화 왔었어요, 막으라고? 국회를 통제하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먼저 국회경비대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안전한 의정활동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병도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국회의장님이 담 넘어서 들어왔는데 할 이야기도 없고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누구 지시받았어요, 국회경비대장은?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저희들은 서울청 지휘망에 따라서……

○한병도 위원 그러면 서울청장이 지시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병도 위원 그러면 서울청장님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청장님 지시를……

○경찰청장 조지호 그건 제가 지시한 겁니다.

○한병도 위원 언론에, 전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청장이 했고 후에는 청장님이 지시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한병도 위원 아, 그러면 처음부터 모두 통제하라, 국회의원 포함?

○경찰청장 조지호 그게 아니라 계엄이 선포가 되고 나서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럴 때는 경찰청에서 직장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한병도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따질 것 없이 아무튼 전체를 다 통제를 한 거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전체를 통제를 했는데 한 19분 후에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 하고 저한테 견의를 해서 오케이, 그러면 국회 상시 출입자는 출입을 허락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한병도 위원 그래서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한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시간 들어가기 전에 국수본부장님, 먼저 발언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발 당했지요. 맞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본부장께서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절차가 아니라 제가 묻는 건 본부장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발됐습니다. 직접 수사할 의지 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수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안보수사단에 배당을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본부장님.

수사할 의지 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지금 당연히 수사를 합니다.

○윤건영 위원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느냐고요. 지금 장난해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아니, 위원님, 제가 배당을……

○윤건영 위원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 본부장이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습니까?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도 동조한 혐의로 같은 범죄 혐의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할 의지 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윤건영 위원 분명하게 있나, 없나를 말씀하세요. 수사할 의지 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윤건영 위원 할 예정이 아니라 본부장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국민들은.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본부장이라는 직책은……

○윤건영 위원 들어가세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수사가 되겠습니까?

경찰청장께 여쭙겠습니다.

경찰청장이 국회 통제를 모든 책임을 지고 다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서울청장한테 이야기 안 하겠는데.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의원이 시위대입니까?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시위대 등을 일시 차단하겠다라는 게 서울청 보고자료입니다, 오늘 보고자료.

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위원님 그……

○윤건영 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조지호 청장, 국회의원이 시위대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아닙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왜 이런 보고서를 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이거는 서울청 기관보고 내용 같은데요. 제가 이 내용을 못 봐서……

○윤건영 위원 아니, 못 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경찰청장 조지호 아니, 제가 이거……

○윤건영 위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국회의원이 시위대냐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이 내용이 서울청 기관보고 내용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윤건영 위원 아까 모든 책임을 진다면서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위원님, 제가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서울청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질의한 것 아니에요.

다음 PPT 띄워 주세요.

불법 계엄 당일 날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지시를 해서 국회를 통제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청장은 계속 자기 책임하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포고령에 따라서 23시 37분에 경찰청장이 전면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계엄군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윤건영 위원 계엄사령부 누구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계엄사령관입니다.

○윤건영 위원 계엄사령관이 직접……

○경찰청장 조지호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계엄사령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경찰청장이 지시를 한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를 내릴 때 포고령 어디에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특히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라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 내용……

○윤건영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게 통상의 정치활동입니까? 답하세요.

포고령 1호에 나오는 통상의 정치활동이냐고요? 국회의원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통상의 정치활동, 포고령 1호에 해당되느냐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윤건영 위원 해당이 안 되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윤건영 위원 사법적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일단 국회가……

○윤건영 위원 제가 다시 물을까요?

○경찰청장 조지호 국회가 기본적인 정치의 장이지 않습니까?

○윤건영 위원 정치의 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헌법에 명시되고 법률에 명시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결의안에 투표하려 국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그걸 막으셨어요. 그게 포고령 1호에 해당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예, 만약에 그……

○윤건영 위원 내란죄에 동조한 것이고 내란죄에 함께 참가한 겁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이게 국회의장이 담벼락을 넘어가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본청장께 묻겠습니다.

의원들을 잡아서 계엄군에 넘기려고 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전혀 아닙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왜 막았습니까? 국회의장이 국회를 못 들어가는 것 이게 정상적입니까? 포고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이게 그때……

○윤건영 위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 아닙니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이번에 내란죄에 가담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행안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이번 상황이 비상계엄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건영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본인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본인이 행안부장관으로 보시기에,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장관이 보시기에 비상계엄 상황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윤건영 위원** 왜 적절치 않지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헌법……

○**윤건영 위원** 대통령이 고유의 통치권을 행사해서 장관은 장관의 입장을 내지 못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것은 고도의 정치행위고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윤건영 위원** 고도의 정치행위면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윤건영 위원** 제가 묻는 건 사후적으로 지금 상황이 비상계엄 상황이냐를 묻는 겁니다. 비상계엄 상황입니까?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사후적으로는 제가 더더욱이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답변을 못 하신다로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다음 PPT 봄 주십시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중의 핵심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동의 여부가 계속……

○**윤건영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결과적으로 묻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요. 대통령님의 언급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장관님, 장관께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왜 평가를 못 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의 워딩 하나하나를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지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위당 하나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비상계엄을 건 거예요. 총칼로 국민한테 들이댄 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거예요. 그 명분이 합당하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걸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 담화문의 작성에 제가 관여했으면……

○윤건영 위원 관여한 게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윤건영 위원 정말 비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걸 평가를 못 하세요? 반국가세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건데 그 답을 못 한다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윤 위원님도 대통령을 직접 모셔 봤지 않습니까? 그게 적절치는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요, 장관님, 이거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은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군사작전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조지호 청장한테 묻고 장관에게 묻는 건 그 총을 겨눈 작전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묻는 겁니다. 그걸 답변 못 한다 그러면 비겁한 장관이지 뭐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춘생 위원 총으로 무장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광희 위원 총을 겨눴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장관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정부 내각 각료 중에요 계엄령을 소위 말해서 판단하고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렇습니다.

최소한 행안부장관·국방부장관은 계엄령에 대해서 건의에 직접적인 책임과 임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판단해서 건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계엄령은 국방부장관이 판단해서 건의했다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무회의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또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관계부처의 장관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애로사항,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본인이 좌우할 수 없었다 하는 것까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장관이 각료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발효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행안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못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비겁한 이야기예요.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는 이야기라고요.

본인이 어떤 의견을 말씀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장관이 대통령을 모시는 위치에서도 당연히 정당하게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려를 표명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가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한 장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본인의 생각이 어쨌느냐는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 역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했고 이번……

○**위원장 신정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취지에서 그 우려를 표명했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말해서 계엄법에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그런 법률적인 판단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당시에 그런 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에 모인 장관들 전체가 정말 깜짝 놀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정훈** 최소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근데 그게……

○**위원장 신정훈** 다른 분들은 장관님과 같이 판단을,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이지만 최소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법에 의해서 이 계엄령의 법적인 요건이 타당한가, 갖쳤는가 이 판단을 하고 참모로서 본인의 의견을 표명했어야 될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장님, 제가 평소에 계엄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해 뒀으면 공부라도 해 뒀을 텐데 계엄의 요건이나 이런 것을……

○**용혜인 위원**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법관이 무슨, 계엄에 대해서 제가……

○**정춘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했으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79년 이후에 계엄은 없었는데……

○**용혜인 위원** 계엄 안 겪어 본 저도 아는 일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요.

○**용혜인 위원** 계엄을 한 번도 겪어 본 적 없는 저도 아는 일이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게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제가 검토하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어떤 담당 공무원도요, 지방자치단체의 7급·8급 공무원도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먼저 법령을 검토합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 각료회의에 참여한 행안부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정부가 망한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적 판단과 이성적 판단을 동시에 발동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에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 자신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 경찰청장님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이해해 주

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주 당혹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요건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됐습니다.

○이상식 위원 왜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되냐고.

○정춘생 위원 계엄이 일상적인 상황이냐고요.

○위원장 신정훈 그 당시의 혼돈된 상황,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감안하더라도 장관의 답변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대한민국 국민 모경종입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계엄을 처음 겪어 본 세대입니다. 겪어 볼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 위헌적인 계엄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모경종 위원 아까 국무회의 8시경부터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8시 한 40분 가까이 돼서 참석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자리에 대리로 참석한 분도 있던가요, 장관이 못 오셔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없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장관들이 다 참석하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의결정족수는 다 채워졌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의결정족수가 채워진 다음에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국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모경종 위원 장관께서는 국무위원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모경종 위원 그냥 단순히 국무위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전체 대표하고 행정안전부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계엄 의지를 표명한 대통령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모경종 위원 우려스럽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중에서 경제 이야기, 의료 이야기……

○모경종 위원 경제 이야기는 행안부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런 이야기들 오고 갔다고요.

○모경종 위원 행안부장관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시기가 적절하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유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말씀이, 시기가 적절하냐라는 것은 시기가 문제라는 의미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기가 적절한 때이냐 그 말씀입니다.

○모경종 위원 저는 이번 계엄이 이번 사태로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한 번 더 또는 여러 차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만약에 똑같은 국무회의가 소집되었다면 그때는 행안부장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본적으로 대통령님의 권한이고……

○모경종 위원 그때도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참모 입장에서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경종 위원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모경종 위원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시고 대통령의 참모가 맞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게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진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회의가, 안건이 올라오고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표명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국민을 섬기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누누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강도를 더 세게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경종 위원 원래 의정관이 참석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작성 안 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못 한 거지요.

○모경종 위원 그러면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마 거기에 있던 직원 누가 작성했을 겁니다.

○모경종 위원 뒤에 의정관, 대답해 보세요. 대신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윤건영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잡고, 시간 끊고요.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모경종 위원 대신 누가 기록했습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의정관 김한수입니다.

○모경종 위원 누가 기록했습니까, 대신?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모경종 위원 알지 못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본인의 역할을 누군가가 대신 했을 거고……

그러면 지금도, 방금 장관께서는 회의록을 작성 중에 있고 또는 업로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달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지금 대통령실에 확인 중에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확인 중에 있어요?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예.

○**모경종 위원** 아직 받지도 못했어요?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러면 통상으로는, 통상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정관이 참석 못 했을 때 누구로부터 받게 돼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저희 의정관실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모경종 위원** 아주 불법을 자인하고 계시는 거고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받기로 하였습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일단은 국무회의가 되면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요.

○**모경종 위원** 무엇을 받기로 하셨습니까? 지금 협의는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도 안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과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관련 안건 내용과 토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어가세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모경종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어느 하나 생산해야 됩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의 역할이지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오지 않을 경우 제대로 다 요청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요청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하고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다만 속기나 녹음이, 그 당시 워낙 급박하게 소집된 상황이라 그것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급하게 진행되면 윤석열 정부는 속기도 안 하고 기록도 안 합니까?

○**모경종 위원**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모경종 위원** 국민들에게 문자로 비상계엄 왜 안 알렸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이제……

○**모경종 위원** 안 알린 겁니까, 못 알린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희가 재난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모경종 위원**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9조제1항 3호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 정보를 알리게 돼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아닙니까? 비상사태여서 계엄 선포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법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재난안전법에서 말하는 비상사태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문자인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모경종 위원** 좋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취지가 아주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정말 다행히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와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기에 망정이지 실탄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이 이후에 국회 이후에 국민들을 향해서 총탄을, 총구를 겨눴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게 어떻게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면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희 업무……

○**모경종 위원** 됐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모경종 위원** 지금 군 병력, 계엄군과 경찰이 선관위에 들어닥쳤지요. 왜 그랬다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경종 위원** 부당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다만……

○**모경종 위원** 불법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 선관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불법이고 위헌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러니까 계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이관을 할 만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모경종 위원** 좋습니다.

서울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모경종 위원** 누구로부터 지시 받았지요? 국회 전체를 통제하라는 지시 누구로부터 받았지요? 아까와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습니까? 경찰청장이지요?

경찰청장님,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습니까? 본인 판단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처음에 한 것은 제 판단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 상시출입자에 대한 출입허가는 서울청장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한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통제는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포고령에 따라서 제가 서울청장에게 지시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경종 위원** 계엄사령부 요청입니까, 지시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계엄……

○**모경종 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계엄사령부의 요청입니까, 지시사항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지금 계엄법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게 요청인지 지시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모경종 위원** 본인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요청인지 지시사항인지도 모르고 판단 내리는 게 말이 되십니까!

요청입니까, 지시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게 기본적으로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이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계엄법을 봐서 그 계엄법에 따라서 발령된 포고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모경종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건영** 모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저희가 지금 전체회의라고 하는데 사실 내란죄에 대한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지호 청장도 그렇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고 이런 명령이 나올지 몰랐다라고 지금은 생각하시겠지만 오늘의 증언 내용이 결국 여러분들 내란죄 재판 법정에서 본인을 수괴로 하게 할 것인지 중요 임무 수행자로 하게 할 것인지 단순 가담자로 징역 5년 이하의 선처를 받을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거짓 없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조지호 청장, 형법 87조 내란죄 구성요건 알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김성희 위원** 보시는 것처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헌’은 뭐지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 국헌문란행위는 뭐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국가의 헌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국가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령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는 행위 이것은 국헌을 지키는 되게 중요한 행위고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문란입니다.

청장, 누구로부터 지시받아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김성희 위원** 잠시만요, 계엄 누구요?

○**경찰청장 조지호** 계엄사령부입니다.

○**김성희 위원** 계엄사령……

○**위원장대리 윤건영** 사령관……

○**경찰청장 조지호** 사령관으로부터 제가……

○**김성희 위원** 잠시만요, 똑바로 답변하세요. 이거 법적 구속력 적용됩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김성희 위원 다시 답변해 보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해 달라 하길래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

○김성희 위원 잠시만요, 국회를 통제하라는 것과 국회의원을 입장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같은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다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국헌문란행위는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 이 경우에는 국회의원,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면 국헌문란이고요. 국회를 지키는 것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라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러니까 국회 전체를 통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그리고 거부를 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조 청장, 지금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신데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런데 거기서 포고령 내용을 확인해 달라……

○김성희 위원 조 청장, 들어……

알겠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제가 포고령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김성희 위원 조 청장, 지금 회의 생중계를 못 보고 계셔서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이미 진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방부차관이 옆에 나서서 국회 병력 투입은 국방부장관이 지시했다라고 이미 실토했습니다. 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병력 투입을 지시한 적 없는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전화통화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왜 메모를 주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아니, 이것 법조문입니다.

○김성희 위원 모르는 내용을, 똑바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위원님, 여기 법조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하는 겁니다.

○김성희 위원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지금……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지요. 본인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수본 본부장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 잠깐 끊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윤건영 시간 멈춰 주시고.

○김성희 위원 내란행위에 대한 수사는 국수본에서 하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번 계엄과 관련돼서 국수본에서 뭐 한 게 있나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어제 퇴근 무렵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계엄행위에 일체 가담하신 게 없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없습니다. 저는 제주도 출장 중이었습니다.

○김성희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내란범죄로부터는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수사를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로 본인의 상관인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장도 그리고 행안부장관까지 다 오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묻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해서 묻는 게 아니고 계엄사령관의 지금 현재 진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에 병력의 파견을 지시한 적이 없다, 선관위에 병력 파견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차관이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국방부장관은 민간인입니까, 군인입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민간인입니다.

○김성희 위원 민간인이 군인에게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것은 제가 지금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장관으로서 의……

○김성희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되지요. 대명천지 어느 나라에서 민간인이 군인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이 국수본장에게 직접 수사를 지시할 수는 있지만 경찰청장에게 직접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안 합니다.

○김성희 위원 경찰청장이 수사 지시를 할 수 있어도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국방부장관이 병력 투입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상적인 경우는 합참이나 해당 군 사령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내무부 내에 어떠한 예외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보겠다는 말씀이고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지금 법안을 확인해 봤는데요 지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계엄사령관을 지휘할 수 있지만 계엄사령관 모르게 예하 부대에 지시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처벌 대상이 맞습니까? 위법입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정을 들어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엄사령관이 국방위에서 답변한 것만 가지고 제가 지금 처벌을 할 수 있다, 없었다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저희가 수집하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성희 위원** 민간인이 군 병력 투입을 국회에 지시했는데, 그리고 그 민간인인 김용현 장관이 지금 해외 출국, 도주 의사까지 밝히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출국 금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어쨌든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걸 오늘 행안위가 끝나면 철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청장님, 이제 내란죄로 가게 되면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도 소추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본인도 같이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사퇴하고 나서 법의 심판을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국회 들어와서 지시하고 했던 과정들 그리고 국회를 막았던 것은 지금 본인은 법대로, 포고령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국현문란 행위였음을 반추해 보니 인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사법적인 판단은, 사법적 판단……

○**김성희 위원**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서, 국회 표결을 막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사정,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헌법학자처럼 완벽하게 헌법 이론을 깨뚫고 법 집행을 하는 걸 기대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희 위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의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헌법책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기 전에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지목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민간인이 군 병력을 동원했냐 안 했냐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더군다나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해외 도피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국수본부장 답변에서 오늘 상임위가 끝나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조치입니다만 만에 하나 오늘이라도 당장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수본부장은 지금이라도 가용한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국수본부장.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양부남 위원** 거기서 답변하세요, 나도 아주 급한 문제니까.

지금 방금 질의한 것처럼 고발장이 접수됐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장관 도망간다고 해요. 출국 금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실무자에게 전화하세요. 그래야지만 수사 의지가 있니 없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검수완박에 의해서 내란죄를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국민의 기대에, 신뢰에 부응하는 겁니다.

또 하나, 고발장이 접수되고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도 자료는 충분합니다. 휴대폰 좀 압수수색하세요. 오늘 당장, 지금이라도 김용현 출국 금지하고 관련자들 전부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바로 하세요. 지금 나가서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경찰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같은 질문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3일 날 경찰 병력 배치를 중앙선관위하고 국회하고 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 한데가 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두 군데만 했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용산 쪽에 좀 배치된 걸로……

○**양부남 위원** 제가, 중앙선관위하고 국회하고 했는데 이 경력 배치 지시를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요? 확실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력 배치를 요청한 게 아니라 일단 비슷한 이유이기는 한데……

○**양부남 위원** 워딩을 그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국회의 통제를 좀 해 달라 요청을 받았고……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딱 찍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국회하고 중앙선관위 통제를 좀 해 달라?

○**경찰청장 조지호** 국회였습니다, 국회.

○**양부남 위원** 그러면 중앙선관위는 말을 안 했는데 본인이 판단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중앙선관위는 거기서 어떤 우발 사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양부남 위원** 좋아요. 국회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의 지시가 됐든 요청이 있었고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셨다?

○**경찰청장 조지호** 우발 사태에……

○**양부남 위원** 좋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거기서 뭐 통제하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야말로 바깥에서 우발 사태 대비만 한 겁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중앙선관위를 우발적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근거는 뭐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도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아까 요청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경력 대비 요청이 아니라 선관위 주요 포스트(post)에 대해서 계엄사령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계엄사로부터 중앙선관위의 경력 배치 지시는 없었잖아요. 본인이 판단했잖아.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예.

○**양부남 위원** 판단 근거가 뭐냐고.

○**경찰청장 조지호** 우발 대비입니다.

○**양부남 위원**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거기는 통제를 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 국회처럼.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를 판단한 근거가 뭐나 이거예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계엄사로부터 거기에 적절한, 특별한 조치가 있을 거니까 참고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양부남 위원** 참고해라?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래서 제가 경기남부청장에게 전화해서 거기는 우발 사태를 대비하는 게 좀 맞겠다 하는 지시 했던 겁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볼 때 명태균 게이트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다음, 국회 통제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계엄사의 지시가 있어서 국회 통제했다고 했지요? 국회의원 출입 통제.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그 당시 지시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요청으로 받아들여서……

○**양부남 위원** 좋아, 좋아. 지시가 됐든 요청이 됐든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요청이나 뭔가 말이 있어서 그때부터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다고 했지요? 맞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처음에……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처음에……

○**양부남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설명……

○**양부남 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요청이 있어서 국회의원 출입

을 통제한 거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래요.

포고문 읽어 봤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양부남 위원 읽어 봤지?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걸 보고 제가 서울청장한테 지시를 했던 겁니다.

○양부남 위원 좋아요. 정확하게 잘 읽어 봤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양부남 위원 좋아.

그다음에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의원이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경찰청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그거야 알겠지.

그러면 본인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를 해 버리면 헌법상 보장된 계엄 해제 요구는 누가 하지요? 그것 생각 안 해 봤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님.

○양부남 위원 그 상태나 지시나 단순화시켜서 본인이 계엄사령관의 지시가 됐든 뭐가 됐든 요청이 있어서 자기가 국회의 출입을 통제했다, 포고문 읽어 봤다……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이 국회……

○양부남 위원 그런데 잠깐 들어 보세요.

그러면 헌법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의원의 과반수로 해제 요구할 수가 있다. 본인들 한다면 이것 못 들어가게 하면 해제 요구를 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내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 안 했어요? 그것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경력 배치도 계엄사령관 지시로 했다고 했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양부남 위원 계엄사령관 지시로 했어요, 경력, 경찰 병력?

○경찰청장 조지호 그 당시에 벌써 계엄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할 때는 국회에 우리 경찰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배치 요구가, 이런 거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양부남 위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했네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양부남 위원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말은 안 했는데 본인이 해석을 해서 국회 통제를 국회의원 출입 통제까지 막으셨네요?

○경찰청장 조지호 국회의 통제를 해 달라는 요청은 국회의 완전 통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부남 위원 그리고 본인이 서울청장……

서울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양부남 위원** 서울청장은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처음에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발 사태 대비 차원에서 우선 통제를 했다고 했고요.

○**양부남 위원** 국회의원 출입, 우발 그것 그만하고.

내가 언론에 보니까 본인은 그걸 처음에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경찰청장 지시로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그것 아닙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에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아닙니다. 처음에 경찰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회에 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거를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실 제가 어떤 법률적 판단 이런 걸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조치라는 것이 우선 통제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서 통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 20분 후에 국회경비대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 들어가기를 요청한다는 말씀이,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해 봤을 때 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하에 그러면..... 그렇다고 모든 일반 시민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면 어떤 위험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님들과 출입중 있는 분들만 출입을 하게 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부남 위원** 됐어요, 됐어요.

국회경비대에 지시를 서울경찰청장이 하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국회경비대장한테 그날 국회의원 출입 통제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제가 지시한 겁니다.

○**양부남 위원** 국회경비대장.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예.

○**양부남 위원** 국회경비대의 임무는 국회 외곽 경비를 맡은 것 아닌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국회 청사 경비 전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청사 경계 근무를 하는 게 국회경비대인데 무슨 근거로 국회 의원 출입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월권, 본연의 임무가 국회 경비와 외곽 경비, 도둑놈 들어오는 것, 누가 담벼락 부수는가 이것 하는 건데 그것 업무를 떠나서 국회의원 출입 까지 통제를 했어요? 그게 월권행위네요.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계엄령에 의해서 하달된 지시는.....

○**양부남 위원** 계엄령 읽어 봤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엄중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양부남 위원 그게 계엄령하고 무슨 관련이 되냐고.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판단하고, 상부에서……

○양부남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경비대장은 계엄령을 받을 위치가 아니야.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시로 하달되어서 결국 서울청에서……

○양부남 위원 누구의 지시 받았어요? 누구 지시 받았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서울청의 지시를 받았지만……

○양부남 위원 지금 국회경비대장은 월권행위 한 거예요. 외곽 근무를 서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 출입 통제까지 한 겁니다.

그것 나중에 법적 판단이 따를 거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오후로 밀리는 줄 알았더니……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12·3 비상계엄 시도가 2시간 38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총칼을 든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에워싸고 무장 경찰들이 창문을 깨고 의사당 내 진입을 시도한 것을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과 경찰 수뇌부들의 이번 사태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날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이상민 장관조차도 지금 제대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통령께서는 그날 국무회의 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혁정국 상황을 굉장히 위중하게 인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떤 정국 상황이 위중했습니까? 계엄령 선포에 대한 분명한 법적 테두리가 있는데 지금 어떤 전시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으로 인해서……

○박정현 위원 탄핵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내용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이 중단됐고요. 그 밖에 검찰이라든지……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앞서 이상민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뭔지가 최근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면 ‘윤, 계엄 곧 해제될 것을 알면서도 야당 경고 위해서 비상계엄 선언’ 이게 말이 됩니까? 야당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언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장관께서도 비상계엄을 선언하면 외교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게 얹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을 선언하게 국무위원인 이상민 장관이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상당히 긴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번에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요건에도 맞지 않아요.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맞지 않습니다. 둘 다 위법하다는 거지요.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이것은 내란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서 이상민 장관이 내란죄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요건과 절차가 맞았는지 여부는 사후에 다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본인이 판사를 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뭔 검증이…… 지금 여러 정황들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을 회피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판사는 정황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증거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상황에서는……

○**박정현 위원** 계엄 건의를 누가 할 수 있지요? 누가 할 수 있지요, 계엄 건의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박정현 위원** 예, 국방부장관은 김용현 장관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상민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두 분 다 충암고 동문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윤석열 대통령도 충암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박정현 위원** 지금 국군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도 충암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박정현 위원**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도 충암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충암고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지금 ‘충암고의 세 시간 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하나회가 생각나게 하는 충암고가 작당해서 지금 내란을 음모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 모인 적이 없습니까? 올해 초에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충암고 출신 3명과 만찬 자리를 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충암고 출신은 거기 2명 있었고요. 해경, 해경의 정보국장……

○**박정현 위원** 긴 변명은 필요 없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변명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박정현 위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장관은 대통령만을 보위하는 직위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통령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리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12·3 계엄령은 요건도 절차도 그리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이 계엄이 선포됐다고 국민들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오늘 갤럽에서 나온 조사를 보면 국민 거의 70%가 이것은 위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동조한 것은 이상민 장관이 내란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무엇을 동조라고 말씀하시나요?

○**박정현 위원**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무엇이 동조인가요?

○**박정현 위원** 계엄을 못 막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대통령의 권한을 그러면 어떻게 막습니까?

○**박정현 위원** 막아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어떻게요?

○**박정현 위원** 불법적 행위를 했다면, 대통령이 불법적 행위를 했다면 장관은……

○**용혜인 위원** 직이라도 던져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직위를 던진다고 그게 막아집니까?

○**박정현 위원** 그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그것을 막았어야지요. 그게 장관의 태도와 업무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그……

○**박정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위원님, 지금 요건이나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판단을 받을 것이고요.

○**박정현 위원** 지금 명백하게 잘못된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리고……

○**박정현 위원** 그것은 장관께서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국민들 다수는 지금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 당시는, 그 당시는……

○**박정현 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현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위헌적 불법 계엄 선포 후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유린했습니다.

다행히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보좌진의 헌신적 노력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함으로 사태를 조기 수습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은 아직도 충격과 공포 그리고 왜 계엄을 선포해야 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금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들에 경고합니다.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군부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려고 한 역사의 죄인에게 자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책임질 부분들을 책임지는 자세만이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중하게 경고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무리 짓기 전에 간단히 몇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이 계엄, 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보좌할 그런 주요 각료의 입장에서 최소한 법률적인 검토 책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고도의 정치·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계엄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위치기는 위치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가장 중요한 위치예요. 그 계엄령이 발효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적인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이 부분을 대통령 본인이 판단하겠습니까? 행안부장관은 계엄법에 의해서 계엄령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쳤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 중요한…… 특히 또 장관은 대통령하고 아주 근접거리의 최측근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지요.

○위원장 신정훈 좋아요. 그 이야기 뺀다 하더라도 행안부장관은 이 계엄령이 발효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좌해야 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분인데 그냥 고도의 통치행위로 이렇게 통치하고 가지 마시고 또 본인이 법률가로서의 경력도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에 포함하든 안 하든 간에 계엄법 2조에 따른 계엄령의 요건을 갖춘, 비상계엄령의 요건을 갖춘 계엄령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말씀이 맞으려면 어떤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제가 계엄을 건의한다면 당연히 검토를 했겠지요. 하지만……

○위원장 신정훈 국무회의에 참여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방부장관의 건의로 대통령께서 결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그런 요건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본인은 그 법률적인 검토를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사후적으로……

○**위원장 신정훈** 제가 지금 사후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사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 계엄이 적법했느냐 위헌이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제가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과연 적절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형사 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을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 존중하겠습니다.

경찰청장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청장께서는 23시 37분부터 1시 45분경까지 2시간 8분 동안 국회를 전면 출입 통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위원장 신정훈** 2시간 8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위원장 신정훈** 그 직후에 군병력이 국회에 진입했고 또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고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회를 전면 통제했던 말이에요.

어떤 지시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국회를 통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위원장 신정훈** 통제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지금……

○**경찰청장 조지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모든 워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자, 기억할 수 있는 것만 다시 물을게요.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몇 시에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제 기억으로는 한 11시 반쯤, 좀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전화가 와서 국회를 통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거부를 하니까 포고령이 발령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제가 포고령을 못 봤는데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고령을, 그 뒤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포고령을 보고 제가 서울청장에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좋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계엄사령관 누구입니까, 이름?

○**경찰청장 조지호** 박안수 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박안수 대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것이 11시 반 이 상황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반경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11시 반 좀 안 된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하지 않았다라고, 투입한 병력을 박안수 대장은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경찰은 지휘했네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군 쪽의 지휘 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위원장 신정훈**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청장께서 직접 받은 계엄사령부의 전화가 박안수 총장 당사자에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직접 받으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내용을 기억하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국회를 통제해 달라?

○**경찰청장 조지호** 국회를 통제를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

○**위원장 신정훈** 자,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국회 통제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아니, 그런데 그 워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위원장 신정훈** 내가 물을게, 가만 계세요!

23시 37분까지 국회 통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부 통제됐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때는 국회 상시 출입자는 통제가, 허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이후에 바뀐 이 통제를…… 그 전의 통제하고 다른 질적인 통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시를, 지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까지 출입을 전면 통제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포고령……

○**위원장 신정훈** 그 요청이라고 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포고령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는 지시를 서울 청장에게 했던……

○**위원장 신정훈**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회 통제를 전 경찰은 국회를 전체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있었고 국회의원의 출입은 일부 허용되기도 했고 보좌관들의 출입도 일부 허용되기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국회의원이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3시 37분에 전면 통제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해라’ 이 이야기를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으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의 출입을 완전 통제해라’ 이 이야기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정확한 워딩을 정확하게 이렇게……

○**위원장 신정훈** 아니, 본인의 판단이었는지 계엄사령관의 판단이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요청을 받았고……

○위원장 신정훈 국회 통제를 해라 한 것은 계엄사령관이라면 지금 국회의원을 통제한 것은 본인의 판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경찰청장 조지호 국회를 통제하라고 하는 요청은 당연히 국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명시해서 통제하라고 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본인이 판단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회를 통제해 달라는 의미가……

○위원장 신정훈 아니, 국회의원을 통제해 달라, 출입을 통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받지 않았다면 지금 국회의원 통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경찰청장이 되는 거예요.

○경찰청장 조지호 이게 누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신정훈 왜 그게 안 중요해요?

○용혜인 위원 중요하지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내란죄에 해당……

○정춘생 위원 누가 했는지 중요합니다. 지금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제가했던 역할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캐물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춘생 위원 그 중요한 사항을 왜 기억을 못 하십니까, 국회의원들까지 통제한 상황이었는데!

○경찰청장 조지호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회를 통제해 달라는 의미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반대로 청장님, 지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해 주세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적인 통제냐, 국회의원을 허용한 통제냐가 전후에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판단을 계엄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의 국회 통제 요구를 받고 ‘국회의원까지 전면적으로 통제를 해라’ 이렇게 서울청장한테 지시하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 상시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이 허용됐다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에서 요청 온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국회에 대한 전면 통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위원장 신정훈 됐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을 서울청장에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서울청장, 본청장으로부터 몇 시 몇 분 정도에 이 지시를 받았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말씀하신 그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구체적인 워딩을 기억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통제라는 것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통제로……

○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이 명시된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제가 정확한 워딩은 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전면통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국회의원 통제를 본인이 판단했습니까? 청장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판단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전면통제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원장 신정훈** 아니, 청장은 전면통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면통제를 서울청장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통제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전면통제니까 의원님을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본청장은 국회의원 거명을, 적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건 제가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서울청장한테 묻는 거잖아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 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면통제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전면통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 국회의사당은 당연히 국회의원의 출입이 허용되는 그리고 제한될 수 없는 장소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까지를 통제하게 된 판단은 본인이 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전면통제라는 것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통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국회경비대장 일어나 주십시오.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예.

○**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의 출입을 최종적으로 23시 37분부터 통제를 했잖아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전까지 통제했어요, 안 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이후부터 시작된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는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서울청 무전망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서울청 무전망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지휘망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휘망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문자로 왔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무전으로 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당사자는 누구였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경비과장이나 아니면 경비작전계장이 무전을 칩니다.

○**위원장 신정훈** 어떤 워딩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저는 사실 23시 30분경에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전에 되어 있는 위험에 의하면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인원을 원천 차단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게 몇 시 몇 분경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22시 48분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때부터 그러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원의 인력 출입을 통제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이미 오래전에 집행된 거네요? 그 시간이 몇 시라고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22시 49분에 저희들이 다시 무전으로 전파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실제로 전면통제가 22시 49분부터 시행됐다는 이야기네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지금 이 서울청 기관보고도 잘못됐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원의 통제를 언제 시달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22시 48분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22시 48분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위원장 신정훈** 전면통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그때는 많은 인파가 몰려서 돌발상황이 우려돼서 전면통제로……

○**위원장 신정훈** 제가 계속 묻는 것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최종적으로 통제한 전면통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판단을 지금 경비대장은 23시 37분이 아니라 22시 48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통제를 해제한 시간이 또 있습니다. 처음에 22시 48분에 차단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가 다시 서울청 지휘망으로부터 23시 07분에 국회의원 신분이 확인되면 출입 조치하라는 지시가 또 내려왔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를 통제하라는 말에 국회의원을 명시적으로 말했건 말하지 않았건 국회 전체를 포함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당연한 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통제 요청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통제 요청의 의도가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려는 작전임을 경찰청장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경찰청장에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증언은 경찰청장이 내란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국헌문란의 의도를 알고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저는 명시적으로 이 판단이 군 계엄 병력의 국회 투입을 외곽에서 경찰이 차단하고 투입의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무산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엄사령부로부터 강제된 것인지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가 있었기는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을 다한 것인지, 아니면서 서울청장이 한 것인지를 계속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경찰 병력이, 경찰청이 계엄군, 특히 불법적인 이 계엄 조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굳이 답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굳이 물을, 다른 조사 과정이라든가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기회 주십시오, 시간 30초만.

○위원장 신정훈 예.

○이상식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해외도피설이 우려가 돼 가지고 우종수 본부장에게 관련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양부남 위원님도 질의했고 그래서 우종수 본부장님, 잠깐 밖에 통화차 나갔다 온 걸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먼저 본청장과 서울청장,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제가 아까 묻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알 테니까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통제를 누구로부터 지시받아서 어떻게 시행했는지에 대해서 각기 본인의 입장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종수 본부장.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위원장 신정훈 방금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용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양부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지금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안보수사단장한테 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휴대폰 앱수수색도 청구……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제가 긴급 출금 하고 그 외에도 지금 긴급히 해야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서 시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시59분)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긴급 현안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간사님들 간의 논의가 있었으나 원활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현안질의를 보다 충실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주신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77조와 71조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긴급 현안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긴급 현안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까지 총 11건의 서류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의결되는 즉시 각 기관에 송부하여 금일 16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회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가 계속 중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위원장 신정훈 오후 첫 질의 순서로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2024년 12월에 45년 전과 똑같은 계엄령하에서 국회에서 질의한다는 현실 자체가 굉장히 통탄스럽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먼저 오전의 질의와 답변 관련해서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지호 청장님,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계엄사령관……

○정춘생 위원 계엄사령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계엄사령관입니다.

○정춘생 위원 사령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사령관이 박안수 대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맞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정춘생 위원 김용현 국방부장관한테 받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날 저녁에 국방부장관하고 통화한 적은……

○정춘생 위원 통화한 내역이 없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통화한 적 없습니다.

○정춘생 위원 알겠습니다.

사진이 흐릿하지만 이 사진 좀 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엄군이 정면으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겨누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면으로 겨누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사이에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총으로 위협하면서 그 진입장벽을 뚫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선관위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선관위는 사법기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정춘생 위원 행정기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정춘생 위원 계엄법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생각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아닙니다.

○정춘생 위원 아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지금……

○정춘생 위원 그런데 계엄군이 정확히 12월 3일 10시 30분에 중앙선관위로 진입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 정말 이상한 지점이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하던 시기였어요, 이 시간이. 미리 준비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헌법기관 수장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하나도 안 하고 아무 피해가 없다, 이런 입장 발표하는 게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이 부분은 엄중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

○정춘생 위원 엄중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실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저희 검토는 거의 다 끝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맞는 것인가에 굉장히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다만 계엄군이 왜 저희 선관위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몰라서……

○정춘생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선관위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국회도 그렇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한 대통령입니다. 그래

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70% 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정춘생 위원 그날 선관위 반출 물품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없습니다. 이 부분 제가 바로 확인을 하고 다행히도 점거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정춘생 위원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염중히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액션으로 대응할지 분명하게 행안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예.

○정춘생 위원 이날 계엄군뿐만 아니라 경찰도 10여 명 미리 가 있어서 정문 밖에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정문 밖에서 출입을 통제한 건 아니고 우발 대비 차원에서 보낸 겁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여기 갔냐고요, 경찰들이.

누구의 지시로 갔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오전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엄사령부 쪽에서 연락이 와서 여기도 상황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거기 혼란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해서 경기남부청장한테 지시를 해서 우발.....

○정춘생 위원 아니, 이때는 청장님이 계엄 상황, 포고 모르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아닙니다. 제가 그때는 경기남부청장한테 전화할 때.....

○정춘생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포고령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발표가 11시 25분이에요.

○경찰청장 조지호 포고령이 아니라.....

○정춘생 위원 그 이후 27분경에 청장님이 인지를 했고 국회 출입 통제도 지시했다고 아까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10시 30분에 경찰은 선관위를 계엄군과 함께 가서 통제를 하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거는 위원님, 국회 통제를 요청하는 계엄사령관의 요청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엄사령부 쪽에서.....

○정춘생 위원 상황이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엄군이 가 있는데.....

○경찰청장 조지호 그러니까 제가 요청 받은 게 별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경기남부청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경기남부청장은 그 시간에도 계엄이 발령된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령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이 지점에 우발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 가서 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정춘생 위원 알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정춘생 위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 찬탈당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국민 입장이나 뭐 이런 거 발표할 생각 없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 구조는 위원회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위원을 소집해서……

○정춘생 위원 빨리 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내일 중으로 뭔가……

○정춘생 위원 헌법기관이 지금 유린당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엄중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행안부장관님, 국회는 범죄자 소굴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당연히 아니지요.

○정춘생 위원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럼요.

○정춘생 위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근거로 해서 계엄령 선포했어요. 종북 좌파 세력들의 소굴이고 범죄자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야당 위원들 중에 누가 종북 세력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 말도……

왜 웃으세요,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당연한 말씀을 하시……

○정춘생 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치안과 국민의 안전, 안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행안부장관이 그 자리에서 책임 있게 반대를 했어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춘생 위원 12월 3일 계엄 선포가 위헌입니까, 합법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고 고도의 통치권이기 때문에……

○정춘생 위원 권한 행사 맞습니다. 그런데 위헌입니까, 합법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건 제가 판단할 게 아니지요.

○정춘생 위원 판단할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해석을 해 보십시오.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춘생 위원 사변이 있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 위기 상황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요건이 안 됩니다. 위헌·위법한 계엄령이에요. 그래서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저희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발생한 일은 국민이 쿠데타를 막은 날이고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경찰의 일련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활동을 강압적으로 막은 행위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려고 했던 국헌문란행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봉쇄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 개개인의 행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를 통한 국가권력 장악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반역이며 이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벌되며 대통령조차도 헌법 84조에 따라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우종수 본부장님, 잘 들으세요.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해야 됩니다. 탄핵 절차나 임기 종료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할 것입니다.

부당한 지시에 따르는 것도 죄입니다. 공권력에 무조건 복종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헌법을 배신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은 강력히 처벌될 것입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 앞에서 명백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대통령 담화문을 보면 담화문의 핵심적인 사항은 이번 비상계엄의 이유가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해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예산농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씩 묻겠습니다.

사법 업무가 마비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없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성곤 위원** 행정부가 마비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마찬가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산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직 진행 중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범죄자 집단 소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하면 탄핵 그리고 특검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특검이겠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글쎄요, 그 의도는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그리고 채 상병에 대한 특검이겠지요. 결국은 본인을 향한 수사를 막겠다고 이러한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구국의 의지로 나의 아내를 보호하고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담화문의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는 계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항에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항에서는 비상계엄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제도, 집회·출판·결사, 정부·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계엄에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는데요. 이번에는 비상계엄을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비상계엄은 보시다시피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적과 교전 상태가 있었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오물풍선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교전 상태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성곤 위원** 교전 상태는 없었지요? 그러면 이건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그것도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현재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때 국무회의 때요,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질문 다 하

시면 제가 나머지 시간에 답변을 드리……

○**위성곤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 그쪽, 그다음에 각부 장관이라든지 방통위원회에 대한 탄핵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위성곤 위원** 더 이상 들어도 아무……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법률적·헌법적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통치자의 사고로 판단해야 됩니까? 법률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는요 이 부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계엄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 그 제한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실질적으로 통치자가 통치를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판단해서 하게끔 한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명백하게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계엄은 위법이고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 사법 기능은 검사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가끔씩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판사에 대한 탄핵 이런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변호사시니까, 범죄의 가능성 가지고 우리 법률이 판단하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해진 행위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행정 기능이 마비됐느냐? 사법 기능이 마비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걸 마비될 가능성성이 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가능성을 동의해요? 행정이 마비됐거나 사법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기보다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성곤 위원** 검사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정부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주어진 권한하에서 국회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절차의 과정 안에 있는 거지요. 그 권한이 명백하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대통령도 헌법에 주어진 권한하에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어떻게 그거랑 그거랑 비교가 가능합니까?

○**위성곤 위원**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장관께서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했다 이것이에 동의하면 저는 그렇게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어느 점에 대해서요?

○**위성곤 위원**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사법 및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냐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 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다만 제가 그날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대통령님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릴 수만 있을 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저는 장관께 묻는 거예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판단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관련된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의를 준 것은 전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그리고 국내의 내치에 있어서 행정과 사법의 이런 기능에 대한 판단은 행안부장관에게 묻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에 보면. 그러니까 그 판단을 안 하신다라는 것은 대통령 의견에 동의하신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생각해도 돼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그 이후의 상황, 계엄 발령 당시 상황의 저의 판단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의 판단을 묻는 건 결국 대통령의 그러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당부당을 저한테 묻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자, 정리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아니, 답변을 하셔야지요. 대통령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해야 되고, 그것이 공무원의 책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위성곤 위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해 장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장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충성하고 상관없는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가와 국민입니다. 하지만……

○**위성곤 위원** 국가와 국민인데 지금 말씀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요, 다만……

○**위성곤 위원** 그점에 대해 분명하게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장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참 안타깝네요. 지속적으로, 행안부장관께서 지금 답변 과정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엄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런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들은 게 사실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이건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장 신정훈** 계엄법에 규정돼 있는 이 규정은 통치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된다? 어떤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고도의 통치행위라든지 정치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입니다.

○**이상식 위원** 이건 정치행위 풀러스 법적인 행위였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지요.

○**이상식 위원** 장관님,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장 신정훈** 검사 탄핵이 소위 말해서 여기 계엄법 2조에 나와 있는 사회질서 내지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판단하면서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장관께서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사후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또 계엄법에 따르는 행안부장관의 책무를 갖는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법의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판단된다…… 판단된다까지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관은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아까 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설명하신 것,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하신 걸 말씀드린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지막으로요,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묻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장관에게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법에 규정한 본인의 책무를 다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엄을 발효시키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행안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대통령에 보좌해야 될 의무가 있는 당사자라고 생각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법기능·행정기능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었던 상황,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서 비상 계엄이 발효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런 판단을 지금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통령님이 그 당시 국무위원한테 설명하신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신정훈** 본인은 대통령께 어떤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이 건의하는 부분은 주로 외적이나 어떤 군사적인 문제고 행안부장관은 경비계엄이랄까요, 국내에서의 소란이나 소요 사태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역할이 배분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번 계엄 선포에 있어서 제가 건의를 했다거나 관여를 했으면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요.

하지만 저도 알게 된 게 그날 당시 갑자기 용산에 가서 처음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사후적으로 생각하듯이 법률을 검토하고, 너무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지요.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선포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이 깊이 논의를 했었고요. 무려 1시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했고,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됐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거기에서 당부, 법률적인 적법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인 본인의 의사를 개진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당황스러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이런 고도의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안부장관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본인의 책무를 다했다고 저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워요. 대통령만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보좌하는 것이 본인의 책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대통령만 보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십니다. 그 진정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야당 혼내키려고 계엄했다는 게 다 나타났는데 무슨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입니까?

○**이상식 위원** 결국에는 이번 비상계엄에 동의하신다는 그런 뜻 같은데요?

○**위원장 신정훈** 장관께서는 총체적으로 법률적 근거와 또 대통령의 어떤 동기까지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지금 쭉 질의 답변하는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의견과는 다르게 저는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언이 계엄법의 선포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위법적 계엄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란의 수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작당하고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란죄의 수괴는 그 양형이 사형입니다. 초범이라고 감형해 주거나 주취감형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도 중벌을 받게 되는 게 내란죄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장관께서 내란죄, 동조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표현에 신중을 기해 달라 이렇게, 첫 인사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조은희 위원은 나가셨는데, 내란죄라고 단정하고 발언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죄라는 말을 누가 먼저 썼을 것 같습니까? 제가 먼저 씹니까? 야당 위원들이 먼저 씹니까?

계엄선포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계엄선포문이라는 게 왜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동의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시키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나오지요.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를 야당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란이라고 얘기한 게 대통령이에요. 그게 이유고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이게 왜 중요한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정국 상황이 위중하다고 대통령이 보시는 것 같다. 그 위중한 내용으로 아까 장관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려고 한 게 바로 계엄선포문에 있는 민주당의 계속되는 관료의 탄핵소추에 대한 문제. 그렇지요? 말씀 계속하셨지요? 그리고 검찰들에 대한 탄핵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 처리의 문제를 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입법 독재와 예산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계엄선포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건 방금 장관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대통령의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광희 위원 권한이라고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관료 탄핵소추나 국가 예산 처리나 입법이나 예산은 국회의 상황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국회의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계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데……

○이광희 위원 역대 대한민국 유사 이래 국회에서 한 행동을 가지고 이게 국기문란이고 내란죄이고 그래서 반국가 행위라서 계엄을 선포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요구하면 바로 해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나가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지금 저희 다 범죄자 소굴이에요. 여기서 지금 답변하시고 계세요, 범죄자 소굴의 범죄자들에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정춘생 위원님……

○이광희 위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역대 대통령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계엄선포문이에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이고요.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관은, 특히나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대통령을 가장 보좌하면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국무회의에 19명 중에 과반수 이상 참여한 것 같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일일이 언론이 물어보니까 7명밖에 참여 안 한 걸로 나와요. 일곱 분은 안 했다 그러고요 나머지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된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과반수가 넘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이광희 위원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계속 말씀하셨지요, 반대하는 분들 많으셨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통과됐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거는 심의이기 때문에요 찬성·반대 의견을 말하지는……

○이광희 위원 장관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건 장관님은 반대하셨느냐, 반대를 권유하셨느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거기에는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광희 위원 답변 오늘 하루 종일 안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광희 위원 그러면 장관님은 나치의 유태인 집단학살에 동조했었던 아이히만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게 아니고요 심의는……

○이광희 위원 장관님의 생각이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이게 문제가 있고 내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거 안 하시고 동조하신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통령님의 고유의 권한 행사를 장관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고유한 권한이라도…… 그러면 공범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광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신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합의가 아니지요.

○이광희 위원 지금 장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윤석열의 뜻에 의해 계엄이 정해지고 선포된, 어떤 절차적인 것보다 대통령의 뜻이라서 됐다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70%가, 오늘 나오는 것 보니까 70% 넘는 분들이 이것은 적법하지 못하다, 적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70% 대 나머지 한 20% 되는 분들 위치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장관님이, 행안부장관을 하고 마지막 회의에 국무회의를 할 때 그때의 결정으로 이 계엄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요……

○**이광희 위원** 왜 곤란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의결하는 기관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따로 없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국무회의 규정은 과반수 출석이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무회의 규정이고요. 계엄법을……

○**이광희 위원** 그런데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요.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방금 말씀드렸지요.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요?

○**이광희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의 조건에 국회에서 하는 일들을 거론하면서 국회의 법률적 권한들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포고령 말씀하시는군요.

○**이광희 위원** 예, 포고령에 있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포고령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안 했지요.

○**이광희 위원** 1시간 동안 하면서 50분간 얘기를 하신다는 분이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요 장관님이 마지막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동할 수 있는 거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장관님도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거는 위원님의 일방적인 생각이고요.

○**이광희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확실하게 내란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만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장관님하고 저하고 다른 생각이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런데 위원님 자꾸 그날 열렸던……

○**이광희 위원** 그 안에 장관님이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공통점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무회의의 성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광희 위원** 나도 공동정범이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들려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건 위원님 생각이 그렇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장관님, 장관님이 계엄을 건의하시지는 않았지만 계엄의 주목적이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장관님 소관 업무라고 아까 주질의에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외침이나 전쟁은 국방부장관이지만 조금 전에 장관님도 내부·경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 소관 사항인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날 국무회의에서는요 담화문에 있는 종북 좌파세력 척결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주로 탄핵이라든지 예산 그다음에 방통위원회의 기능 정지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담화문 발표할 때 저희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거기서 모여 있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에서 하신 것이다,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거는 언뜻 듣기에는 이번 비상계엄의 발동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조하는 것처럼 저희는 들립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과는 다른 문제로서요 위원님들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만큼 대통령님도 그 마음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식 위원** 동조한다 이런 식으로 그걸 동의하신 건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전화가 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률적으로 이게 약간 의문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아까 언뜻 하신 것 맞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포고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가지고 김용현 장관한테 이거 법률 검토했냐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말이지요,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대장이고 치안총감이신데 박안수 계엄사령관 정도가 이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금 내란죄 성립 여부, 내란죄 공범이다 아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전화 한 번 했다고 해서 이만큼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청장이 선뜻 동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날 밤 혹시 다른 분들,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한 적 없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청장하고……

○**이상식 위원** 서울청장 말고 혹시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장하고 통화한 적 없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위중하냐면 계엄법 4조에 보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다 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국회가 폐회 중이면 집회를 요구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과는 별도로 계엄법에서도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계엄법을 집행하는 계엄 포고령에 완전히 반대되는 국회를 통제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청장이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 저는 이것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일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상식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포고령을 이야기를 해서……

○이상식 위원 포고령을 봤다?

○경찰청장 조지호 예, 포고령을 보니까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청장이 그것을 보신 것은 사실인데 저는 청장님 정도 되면, 경찰청의 다른 참모도 있고 법무 참모들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짧은 시간에……

아까 박안수 총장하고 11시 반 정도에 했다 그랬지요? 통화했다고 그랬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이상식 위원 그러면 37분. 7분 만에, 이런 짧은 기간에 판단을 해 가지고 그대로 했다, 이 중차대한 사안을?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위원님, 기본적으로 굉장히,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고 기본……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중요한 사안에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경찰청장 조지호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그것은 인정하지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청장, 보통 일입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공수부대가 내려와 가지고 경찰청을 둘러싸고 총기를 집중한 채로 창문을 부수고 본회의장에 난입했다, 이게 45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판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최소한 오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청장도 여기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는 거지요? 본인이 스스로……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차적으로 거부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포고령의 내용을 보고 그래서 계엄법에 따라서……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관련된 포고령 내용을 확인했던 겁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만……

선관위 사무총장님, 이것 보시고 점검을 했는데 피해가 없다고 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상식 위원 외관상의 피해는 없을 수 있는데 여기에 혹시 전산기록이 삭제되거나 복사하거나 하는 이런 로그기록 그것까지도 다 확인하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확인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 그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뭐 때문에 여기 국회에 진입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병력이 선관위에 갔는지 저는 알 수 없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사태 종료되자마자 바로 확인해서, 그와 같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질문을 하셨고요.

○**이상식 위원** 아니, 시도했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CCTV 기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이상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명태군 씨가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차라리 특검을 받겠다 하고 이야기한 직후에 나온 행보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종수 본부장님.

아니,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출금금지 검찰도 했다는데 경찰은 어떻습니까? 경찰도 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저희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요청을 해도 법무부로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본부장님, 이게 아까 수사 시한이나 얼마큼 빨리 수사하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물리적으로 시한을 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어떤 전력이 있나 하면 3월 9일 날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서 3월 16일 날 김혜경 법카에 대해서 득달같이 수사에 착수했고 5월 9일 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5월 14일, 5일 만에 경찰서장이 자기 판단으로 두산건설을, 이재명 대표의 의혹과 관련된 두산건설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 말이지요. 얼마나 득달같이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국민적인 의혹이 이렇게 집중되는 사안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 오전에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그렇고 수사 의지가 있나,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하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에 따라 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저도 유권자이고 저도 국민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의지나 이런 것을 있다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이상식 위원** 아니, 엄정하게 수사……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수사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수사를 요청한 사람이나 또는 수사 요구를 받은 사람들한테.....

○이상식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잠깐만.....

이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과잉 수사나 소극 수사의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수사의 양대 가치가 뭡니까? 신속과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적법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게 무슨 가이드라인입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아니, 그런데 오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 말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장관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보시면 1979년 10월 26일 날 부마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다음 날, 10월 27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980년 5월 17일 그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때 보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부 다 부서를 했지요.

그 당시 1980년 5월 17일 날 밤 21시 50분에 했는데 대통령 최규하, 국무총리 신현학, 국무위원 경제기획원..... 죽 서명을 했어요. 이게 부서를 한다는 거지요.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양부남 위원 그다음에 PPT 안 띄워져 있는데 기안 용지가 있어 가지고 비상계엄 선언문이, 선포문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있는 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회의 참석하셨을 때 3일 날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은 이런 서명 자체를 전자적으로 하고요.

○**양부남 위원** 그러면 전자적으로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지금……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는데요, 아마 부서가 제 생각은 주무부처인 국방부장관 그다음에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순으로 부서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양식은 별씨 저게 45년 전이니까 당연히 전산으로 바뀌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이런 양식은 안 씁니다.

○**양부남 위원** 전산으로 서명을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주무부처 장관이……

○**양부남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주무부처 말고도 그 당시에는 전 국무위원들이 다 부서를 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이렇게 안 합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은 바뀌어졌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지금 이렇게 안 합니다.

○**양부남 위원** 아, 그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주무부처 장관하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엄법에 보면 계엄을 건의하실 수 있는 장관은 국방부장관하고 행안부장관이거든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양부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무장관이 이런 부서를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위법성이 짙어지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건의한 게 아니고……

○**양부남 위원** 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요, 국방부에서 했기 때문에……

○**양부남 위원** 제가 알아요.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방부장관이 주무부 장관입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 건의했는지 아는데 이러한 부분을 그러면 자료로 좀 알려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제가 확인을 해서……

○**양부남 위원** 그때 했는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경찰 병력을 동원할 때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처음에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국회에 우발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제가 서울청장한테 지시를 해서……

○양부남 위원 아니, 본인이 지시받은 것,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국회의 통제에 대해서……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했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양부남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서울청장한테 하고 또 서울청장은 필요한 국회경비대로 했는데 그때 유선으로 지시를 받았습니까, 휴대폰으로 지시를 받았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휴대전화입니다.

○양부남 위원 휴대?

○경찰청장 조지호 예.

○양부남 위원 그리고 서울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양부남 위원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휴대폰으로 받았어요, 유선으로 받았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그때는 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본청 경비국장을 통해서 우리 공공안전차장에게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장하고는 그 당시에 업무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까, 한 번도?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아닙니다, 통화……

○양부남 위원 그것을 뭘로 했냐고? 유선으로 했어요, 휴대폰으로 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휴대폰으로 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휴대폰으로 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양부남 위원 그리고 국회경비대장한테 연락 올 때도 휴대폰으로 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국회경비대장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휴대폰 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 무전으로 무전으로 지시가 다 됩니다.

○양부남 위원 휴대폰 했어요.

우종수 본부장님.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양부남 위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부 다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오전에는 빨리 출국금지 지시를 해서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굉장히 급한 문제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휴대폰을 빨리 압수 영장을 신청해야 돼요. 그것 조치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안보수사단에 지금 빨리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것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휴대폰으로 연락하니까 휴대폰을 꼭 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와 국회에 경력을 배치했는데 만약 계엄이 성공을 했어. 성공했다면 그다음 단계는 어디에다 병력 배치해서 통제하려고 그랬습니까? 로드맵이 나왔지요, 계엄사로부터, 어디 어디에 하라고 단계별로?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전혀 로드맵이 있을 수가 없고요.

○양부남 위원 그러면 성공했으면 그다음에 어디 하려고 그랬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에 우발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 그것은 계엄사령부의 요청과 상관없이 제가 서울청장한테 지시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부남 위원 그래요. 성공을 했으면 성공을 해 가지고, 지금 3일 날 했으니까 4일, 5일…… 오늘 또 어디인가에 병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아직 안 했다 이거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만약에 위원님 말씀……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그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여론조사했던 공표용로 데이터(raw data), 자료에 다 보관돼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공표용 말씀이십니까?

○양부남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보관돼 있는데 이게……

○양부남 위원 비공표용도로 데이터 다 보관돼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법상으로 짚습니다.

○양부남 위원 기간이 짚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명태균 씨가 언론에 그렇게 주장했던 여론조사 공표용, 비공표용 조작에 관련됐다는 그 자료들도 선관위에 일용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비공표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희한테 사후 결과를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없고, 공표용 자료는 현재 그러면 선관위에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명태균 씨가……

없어요?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등록된 자료만 갖고 있고 로 데이터 전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랍니다.

○**양부남 위원** 일부는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경찰청장님이 중앙선관위에 경력을 배치하고 국방부에서 군을 보낸 이유가 명태균이 관련했던 여론조사 자료를 어떻게 해 보려고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장관님, 국무회의 참석을 아까 제가 보니까 1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숫자를 세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세지는 않았고요.

○**채현일 위원** 그런데 요건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11명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요.

○**채현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위헌적인 국무회의가 되는데, 9명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지금 법무부장관하고……

법무부장관이 왔었나요, 그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본인이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채현일 위원** 그것 한번 말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왔어요 안 왔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 제가 말씀드리기 약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그날……

○**채현일 위원** 중기부장관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세 번의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세 번의 국무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채현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그 국무회의 때, 모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세 번의 국무회의가 굉장히 연달아서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참석하신 인원이 달랐습니다.

○**채현일 위원** 중기부장관, 산자부장관은 모르세요? 다른 분들은 다 명확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중기부장관, 산자부장관이 두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세 번째에 했는지가…… 그러니까 해제 때 참석했는지 선포 때 참석했는지 아니면……

○**채현일 위원** 첫 번째…… 비상계엄이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어떤, 비상계엄……

○**채현일 위원** 비상계엄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첫 번째지요.

○**채현일 위원** 첫 번째,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리고 두 번째가 해제할 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다음 날 아침에……

○**채현일 위원** 그런데 11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이렇게 누가 없는지 모르면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아까 11명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채현일 위원** 11명 될 거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채현일 위원** 11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단정적으로 11명인지 12명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채현일 위원** 11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면 성원이 안 되니까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채현일 위원** 성원이 안 된다는 건 누가 판단한 거예요, 성원 되고 안 되고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숫자니까, 지금 대통령(의장)을 포함한 국무회의가 총 21명이니까……

○**채현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안부장관님이 국무회의 주무 책임자세요. 그날 기록관도 안 오시고 그러면 장관님이 이 내용을, 국무회의가 형식적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은 장관님이 하시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때 세 가지고 11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때 뭘 논의했습니까, 그 선포할 때? 계엄 선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국회 봉쇄하고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한다는 그것도 논의를 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건 논의 안 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뭘 논의를 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계엄 선포됐을 때 경제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대외 관계라든지 신인도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국민들이 계엄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여부 이런 여러 가지……

○**채현일 위원** 그런데 장관님이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건가요? 계엄 선포 자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채현일 위원** 그러면 시간대는 알고 계셨어요, 언제 계엄 선포한다는 것?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10시로, 맨 처음에 제가 도착했을 때는 10시에……

○**채현일 위원** 그러면 계엄 포고령은 누가 작성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건 저희가 전혀 모릅니다.

○**채현일 위원** 포고령도 모르셨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모르지요.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지요.

○**채현일 위원** 국무회의 때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포고령은 아마도 계엄 선포된 이후에 나왔겠지요.

○**채현일 위원**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작성한 거예요, 아니면 계엄 상황실에서 작성한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

다.

○**채현일 위원** 담화문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담화문도 몰랐습니다.

○**채현일 위원** 담화문도 모르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채현일 위원**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게 뭔 내용인가요? 제가 볼 때 별 내용 없는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어떤 거요?

○**채현일 위원** 비상계엄 한다는 것 말고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요?

○**채현일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신인도나 국제 관계에 미치는……

○**채현일 위원** 계엄군이나 경찰 여기가 투입이 돼 가지고 어디에 간다는 것은 몰랐다고요, 국회에 대해서 봉쇄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무회의에서 설마 그런 것을 논의하겠습니까, 위원님.

○**채현일 위원**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혹시 또 대통령님하고 충암고 동문이고 측근이니까 김용현 장관이나 함께 사전에 논의한 적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지요.

○**채현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통치행위라고 해 가지고 말할 위치가 아니다 했는데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통치행위는, 합헌적인 통치행위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사법적 심사는 안 되지만 위헌적인 통치행위…… 헌법 77조에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국회의 권한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통치행위니 뭐니 해서 사법적 심사 아니라면서 왜 그렇게 발뺌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채현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관님은 국가의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대통령께 정확하게 입장을 얘기하고 했어야지요. 그런데 아까 사법적 심사 아니라면서 그렇게 회피하신 것은 상당히 비겁하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이번 비상계엄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그 판단이 쉬운 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채현일 위원** 아니, 어떻게 법을 전공하신 분이 통치행위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현일 위원** 과거의 통치행위는 유신 때, 군사독재 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87년 헌정 체제 때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실제로 그 권한을 다 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채현일 위원 아무리 어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요.

○채현일 위원 이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국회 봉쇄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그 자체가 엄청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잖습니까.

○채현일 위원 아니, 계엄군 200여 명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난입했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겠지요.

○채현일 위원 지금 마음먹으려고 하다가 안 된 거잖아요. 뭔 소리예요?

○정춘생 위원 마음먹었는데 국회의원들의 속도가 더 빨랐던 거예요.

○이광희 위원 지금 국회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게 아니고요.

○이광희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겁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국회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신이 군통수권자라는 이유로 계엄 실시한 것 아닙니까?

○정춘생 위원 계엄 요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요건에도 안 된다고 하루 종일 계속 지적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사후에 판단할 문제고요.

○채현일 위원 잠깐만요.

행안부장관님이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진정으로 있었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비상계엄 발표에 대해서 막았어야 됩니다. 우려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되고 나니까 통치행위니 뭐니 하면서 발을 빼는 행동이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현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장관님,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말 장난스럽게 저희에게 답변하지 마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신중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불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에게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이런 말씀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밝히지 않을 이유도 전혀 없고요.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이야기 좀 들어 보세요.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 했겠습니까’ 이게 말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국회가 분노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에요. 봉쇄가 됐으면 상황이 아주 달라졌어요. 봉쇄를 못 한 거예요. 미수에 그친 거예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 그 이후에, 쿠데타 실패한 이후에 말입니다. ‘우리가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했다’, 지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데 정말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공범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했다’, 봉쇄하려고 안 했어요? 모든 정황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계엄 이후의 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 바가 없지요. 제가 어떤 집행을 했는지……

○**위원장 신정훈** 그런데 어떻게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봉쇄 못 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박정현 위원** 어떻게 알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게 아니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고요. 국회에서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제가 된 거고요.

○**위원장 신정훈** 자기가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면 철저히 회피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제 책임을 회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왜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추측으로 말입니다.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 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말입니까, 국무위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부분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취소가 아니라 사과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사과도 하셔야 돼요, 장관님.

○**위원장 신정훈**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관위에 경찰 병력 투입 결정을 조지호 청장은 어떤 지시를 받고 시행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별도로 지시를 받은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원장 신정훈** 상황을 누구한테 연락받았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계엄사령부로부터 ‘지금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연락받았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투입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원장 신정훈 국회 관련돼 있는 조치하고 별도로 지시를 받았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별도 지시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받고……

○정춘생 위원 누군지를 모르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까?

○위원장 신정훈 청장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경찰청장 조지호 하여튼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계엄사령부 누구입니까? 이야기하세요.

○정춘생 위원 경찰청장이 누구인지 확인도 안 합니까?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건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참모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박정현 위원 지금 하세요.

○이상식 위원 뒤에 배석자들 확인하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참모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본인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혜인 위원 아까는 본인이 통화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계엄사령관……

○위원장 신정훈 경찰청장, 다시 또 묻겠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국회 통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당일 포고령과 계엄령 발효된 이후, 전후해서 계엄사령관 외에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당일 국방부장관하고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연락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계엄 이후에는 연락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계엄 이전에는요?

○경찰청장 조지호 계엄 이전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최근 시간 무렵에 사무실 근처에 대기했으면 좋겠다 얘기해서……

○위원장 신정훈 됐습니다.

행안부장관으로부터 통화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행안부장관님이요?

○위원장 신정훈 예.

- 경찰청장 조지호 행안부장관님은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었는데 제가 그때 다른 지시 때문에 바빠서 전화 통화를 거의 못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못 했던 것이 확실합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경찰청장 조지호 통화 연결이 됐는데 실제 대화를 거의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무슨 말씀입니까? 연결은 됐는데……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정훈 가만히 계세요.
- 경찰청장 조지호 그때 제가 전화를 받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를 받았고 그 일을 막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죄송하게도 장관님을 좀 대기하게 했고 그 뒤에 통화가 조금 됐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무슨 내용을 통화했습니까?
- 경찰청장 조지호 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 위원장 신정훈 무슨 지시를 하셨습니까?
- 경찰청장 조지호 저도 그때 참모들을 모아 놓고 지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위원장 신정훈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찰청장 조지호 저 말입니까?
- 위원장 신정훈 예.
- 경찰청장 조지호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는 계엄 되고 나서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무슨 전화를 했습니까? 내용이 뭐였습니까? 경찰 병력이 부족해서 군 병력을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방금 전에 국방위원회에서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도 있으니 경찰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몇 시 정도에 했습니까?
-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계엄 선포되고 나서 그 이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알겠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위원장님, 오전에 저희가 현안보고를 할 때 특히 경찰 관련해서 청사 진입 시각이나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위원장님 그걸 받고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진행 경과에 대해서, 그 시간과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자료로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다 드릴 겁니다.
- 한병도 위원 그러면 하나만, 22시 30분이 아니었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최초에 보고할 때 22시 30분에 계엄군 10명이 오고 경찰도 같은 시간에 10여 명 정도 왔다고 했는데 이게 같이 섞여 가지고 돼 있는 것으로 CCTV 확인 결과 밝혀졌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정리된 자료를 문서로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 부분 수정할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때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는 이 내용 다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 제가 관련한 것 질의를 드리려고 해서요.

그러면 22시 30분에 계엄군 10명, 경찰 10명인데…… 경찰 10명은 22시 30분에 그때는 아예 없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없었습니다. 계엄군만, CCTV 결과 대원 10여 명이 청사에 투입되는 것으로 그 영상만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경찰은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경찰이 나타나는 시각은 23시 09분부터 25시 사이에 4명만 확인돼서 나타났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아까 경찰청장은 본인의 지시로 갔다고 했잖아요.

○한병도 위원 제 질의 잠깐 멈춰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정춘생 위원님, 질의를 진행하고 나서……

○한병도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청장님은 23시 30분 이후에 경찰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국회의 출입 통제와 관련한 것을 서울청장한테 지시한 거고요.

○한병도 위원 그러면 선관위는 언제 지시하셨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선관위는 계엄 직후에 연락이 와서, 그래서 우발 상황을 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경기남부청장한테 전화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병도 위원 아까 그게 계엄사령부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한병도 위원 박안수 계엄사령관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앞의 전화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아닙니다.

○한병도 위원 22시 28분 이후에 통화한 게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한병도 위원 그러면 김용현 장관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하고는 당일 저녁에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님 핸드폰 번호가 저한테 없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러면 박안수 계엄사령관인 줄은 모르겠고 계엄사령부하고 통화했다. 박안수하고도 통화했다고 하셨잖아요, 방금이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 뒤에 한 거지요. 그 뒤에 한 23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계엄사령관하고 통화를 했고 그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통제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

니다.

○**한병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전에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병력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이거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사령관하고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사령관하고 이야기한 거는 국회에 관련된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러면 계엄사령부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그 말씀인 건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한병도 위원** 선관위의 조치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계엄사령부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는 거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한병도 위원** 그런데 그 누군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거는 제가 참모들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말하기 좀 곤란하신 거잖아요, 지금?

○**경찰청장 조지호** 아닙니다.

○**한병도 위원** 기억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런 건 계엄사령관도 다 이야기하는데 말씀 못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병도 위원** 그러면 청장님, 이게 참 계속 미스터리인데 계엄사령부 누군가로부터 선관위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한병도 위원** 근데 계엄사가 선관위에 취하겠다는 조치가 무엇인가라고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생각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만……

○**한병도 위원** 근데 나중에 경찰을 보냈을 때 경찰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청장님의 나름대로 판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을 선관위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관위에 특이한 상황이 있으니 혹시라도 우발상황이 예상될 수 있으니 우발 대비를 하라는 지시를 했던 겁니다.

○**한병도 위원** 그래서 경찰이 투입이 된 거고만요, 23시 30분 이쯤에.

○**경찰청장 조지호** 우리 경찰의 특성상 아마 선관위에 진입하고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외곽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찰이 미리 위험 발생 방지조치를 하는 겁니다.

○**한병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다고 하고 청장님하고 통화를 한 그걸로 확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돼 있거든요. 즉 계엄사령관이 해야 됩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어차피 계엄사령관의 명의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병도 위원** 그런데요, 계엄사령관은 국방위에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

본인이 계엄 선포, 대통령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하고 나중에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뒤에 임명을 했겠지요. 그리고 장관한테 법리검토 요구를 하고 막 장관이 검토됐다고 해서 본인이 계엄사령관이 됐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면서 중앙선관위에 병력 들어간 줄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병력 국회 투입 인지하지 못했다, 제가 명령 통제 안 했다’라고 지금 국방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령관이.

그러면 사령관이 아닌 본인이 명령 통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지시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사령관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는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용 저희들한테 전달되어지는 그 내용과 형식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병도 위원 아까 제가 계엄법에 따라서 이 법령에 근거해서 계엄사령관이 사무를 다 총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련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사령관이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본인 아니면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게 저희들은 일단 인식을 했던 거지요.

○한병도 위원 그런데 답변은 아예 그런 걸 계엄사령관은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오전 국방위 답변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이게 이 문제의 심각성은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겁니다, 두 곳의 헌법 기관을.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도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선관위를 이렇게 하고 계엄사령관의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령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자료 요청 겸……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선관위에 병력을 배치할 때 경찰청장이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하는데 아직 확인을 못 하고 계시는데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나가서 통화 한번 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윤건영 위원 바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 신정훈 그렇게 해 주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배석하신 경찰 관계자분들 계시면 경찰청장님 들어오시라고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오래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용혜인 위원 아까 선관위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고를 받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오전에 현안보고 질의 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일부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CCTV 확인 결과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22시 24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2시 33분 계엄군 10여 명 중앙선관위 청사 내 투입, 23시 00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포고문 발령, 23시 09분부터 23시 25분 사이 경찰 4명 도착 및 정문 배치, 23시 58분 경찰 90여 명으로 추산되는 병력 청사 밖 버스 차량 대기, 12월 4일 수요일 00시 34분부터 01시 31분경까지 계엄군 110여 명 추가 청사 내 투입, 01시 00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01시 42분부터 01시 58분 계엄군 철수, 04시 30분 계엄 해제안 국무회의 의결, 07시 14분 경찰 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리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위원님, 제가 확인한 내용 보고드릴까요?

○위원장 신정훈 예.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 방첩사령관한테 요청받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계속하십시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청장님, 방첩사령관한테 요청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경찰청장 조지호 요청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상황을 설명을 듣고, 요청이 뭐였나면……

○윤건영 위원 잠시만요. 계엄 발표 이후에 방첩사령관이 청장님께 직접 전화가 왔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윤건영 위원 그런데 왜 기억 못 하세요, 아까?

○경찰청장 조지호 아까 제가 통화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윤건영 위원 누군지 그걸 모른다고 그걸 찾아서……

○경찰청장 조지호 그런데 그 내용을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는 제가 헷갈렸는데 그때……

○윤건영 위원 방첩사령관이 그러면 선관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특이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일종의 협조 요청을 한 건가요?

○경찰청장 조지호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경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윤건영 위원 예, 그 얘기 아까 이야기하셨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수사관을 준비해 달라 하는 것, 오케이 했고 그다음에 선관위 쪽에 우리가 갈 예정이다 해서 알았다, 그러면……

○윤건영 위원 방첩사령관의 그런 지시 또는 요청이 법적으로 경찰청장이 수명해야 될 사안입니까, 계엄사령관도 아닌데?

○경찰청장 조지호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관 지원 요청에 대해서 일단 알았다고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보낸 건 아닙니다. 검토를……

○윤건영 위원 아니, 선관위에 보냈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선관위 보낸 거는 아까 제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간다 하길래 그래서 우리가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우발 대비……

○윤건영 위원 말을 분명하게 하세요.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경찰 경력들을 도와 달라라고 이야기해서 보낸 거잖아요. 방첩사령관이 그럴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방첩사령관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저희들한테 알려 주지도 않고 저희들은……

○윤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찰청장이 선관위로 경력을 보낸 게 잘못된 거라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만약에 거기서……

○윤건영 위원 ‘만약에’가 아니라……

○경찰청장 조지호 거기서 충돌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충돌을……

○윤건영 위원 잠시만요. 경찰이라는 공권력은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령관이 요구한다고 모든 데 경찰 경력을 다 보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윤건영 위원 그런데 왜 보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거기서……

○윤건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거기서 우발상황이 있으면……

○윤건영 위원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제77조 5항 잘 아시지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해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2월 3일 날 당시 국회의원의 활동, 즉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활동에서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까, 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없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윤건영 위원 그러면 아까 청장께서는 오전 질의에서 포고문을 보고 1호, 특히 1항을 보고 국회를 통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신 게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노력이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는데 포고문 어디를 보고 국회를 통제하신 거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국회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이전 PPT, 이 헌법조항 77조 5항에 대한 검토 안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헌법 77조 5항에 따라서 국회에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경찰이 막아선 거예요. 경찰의 행동이 위법·부당한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 당시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건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말……

○윤건영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라서……

○경찰청장 조지호 변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판단 내렸던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건영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여러 가지 상황이 충돌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일이고 해서 일용 그 상황에서 합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정당한 어떤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윤건영 위원 자, 헌법 77조 5항은 정당하거나 위법·부당한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그 자체로……

○윤건영 위원 헌법이 높습니까,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법적으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윤건영 위원 헌법이 높으나,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 포고령 1호가 더 지켜야 될 가치인지를 묻는 겁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헌법이 당연히……

○윤건영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경찰이 막아섰어요. 위법한 것 아닌가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

○경찰청장 조지호 물론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고 제가 지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2월 3일 날 있었던 경찰의 행위는 위법한 행동이었어요.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을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한 번도 이 시간에 자랑스럽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윤건영 위원 지금 행태가 그렇다는 거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윤건영 위원 잠시 제 말 들으세요.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포고령 어디에도 헌법을 어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포고령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위법·부당한 것은 여기서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경찰의 지휘부가 잘못된 포고령……

포고령 그때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았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건영 위원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경찰청장이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통제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경찰청장 조지호 언론 보도가 아니고요.

○윤건영 위원 잠시만요. 언론을 통해서 본 포고문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포고가 내려졌으니까 확인해 달라는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직 내가 확인을 못 했으니 확인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확인을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참모들이 가져온 게 그때 동아일보로 기억되는데 포고령 전문만 딱 있는 그 내용이 확인이 돼서 그래서 그러면……

○윤건영 위원 청장님, 동아일보로 추정되는 언론의 포고령 전문이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공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저희들이 포고령을 확인하라고 제가 실무진에게 이야기를 했고……

○윤건영 위원 아니요, 지금 청장께서는 동아일보를 보고 경력을 출동시켰다고 하시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이런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건영 위원 동아일보를 신뢰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동아일보를 신뢰한다는 것이 아니라……

○윤건영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포고령 공문을 받아 보고 움직이는 게 경찰 경력이지요. 공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동아일보 보고 경찰 경력을 움직여서 국회를 통제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포고령의 전파처가 어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포고령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포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건영 위원 신속하게 그것을 계엄군에 요청해야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 포고는 방송 또는 언론을 통해서 포고가 되는 겁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요, 청장님, 동아일보 보고 경찰 경력을 움직였다 그러면 세상천지가 다 웃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위원님, 포고 자체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언론 매체인 겁니다.

○윤건영 위원 당연하지요. 포고령은 원래 그런 건데요 경찰에서 경력을 움직일 때는 그게 아닌 겁니다. 경찰에서 경력을 움직이는데 동아일보 보고 움직였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동아일보를 보고 움직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건영 위원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동아일보로 기억된다고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포고가 방송 또는 신문, 언론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윤건영 위원 청장님, 포고문을 못 보셔 가지고 청장님께서 포고문에 위법·부당한 게 있는지 살펴보고 이야기하겠다고 계엄사령관한테 이야기하셨지요? 그러면 계엄군에게 포고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받으셔서 확인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동아일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참모들에게 포고령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윤건영 위원 그 지시는 출동 이후에 한 거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아닙니다. 출동이…… 그것은 포고 그 지시를 한 거지요.

○윤건영 위원 포고문을 수령한 시기가 23시가 넘었던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윤건영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팩스로 받은 거고요. 팩스로 받은 거고 저희들이 포고문을

확인한 시점은 다릅니다.

○윤건영 위원 동아일보 보고 했다고……

○용혜인 위원 그것을 동아일보 보고 확인하셨다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동아일보가 아니고 포고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포고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혜인 위원 그러니까 언론 보고 하셨다고요.

.....
○위원장 신정훈 청장께 묻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문 과정이나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국회 통제를 좀 더 강력히 해 달라,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포함한 출입 통제를 해 달라 최초에 이런 지시가 왔을 때 법률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돼서’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법률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국회의 본질상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이 기본권인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 법률의 위임 규정이 없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포고령에 의해서 이것은 갈음이 되는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은 의중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엄령이 발효되고 계엄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명령·지휘 계통에 있지 않은 방첩사령관이 선관위에 경찰력, 계엄군의 군 병력의 투입을 알려 주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국회에 병력 투입 과정이라든가 국회의 전면적인 봉쇄 지시 과정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국회와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전후해서 방첩사령관하고의 통화는 한 번이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신정훈 서울청장께 묻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첩사령관과 그날 계엄령 발효 전후해서 통화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우종수 본부장.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위원장 신정훈 계엄령하에서 방첩사령관이, 이런 계엄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령·지휘 계통에 있지 않는 자가 이런 역할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장님 질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위원장 신정훈 방첩사령관이 계엄사에서 정식적으로 명령·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입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런데 방첩사령관이 이렇게 경찰청장에게 조치 요구하고 협조 요청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군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상황에 그런 권한이 있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방첩사령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니,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면서 지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첩사령관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글쎄, 제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휘라고 봐야 될지 요청이라고 봐야 될지 의견문이라고 봐야 될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좋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면밀히 지금 입건되고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니까 방첩사령관의 조치 상황,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의 역할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장관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이런 많은 질문들을 받는 것 그다음에 의심을 받는 것 혹시 좀 억울하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추측성 질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은 어떠신가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고 있는 상황,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억울하신가요?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제가 국민 앞에서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질문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번 일련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떳떳하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초유의 일이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여러 가지 충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좀 전에 국방위에서는 국방부차관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성찰하는 발언을 했는데 혹시 청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저도 초유의 일이고 해서 제가 많이 부족해서 잘못했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제 지시를 따라 준 현장 경찰관들은 충분히 슬기롭게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예, 거기까지 듣고요.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장관과 경찰청장 그리고 많은 분들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순간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계엄이 해제되었고 해제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모일 수 있었고, 만약에 그 상황이 없었더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군이 국회를 짓밟고 선관위를 짓밟고 국민들을 짓밟은 1980년 그때의 상황을 다시 연출했을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은 분노해서 분명히 항의를 했을 거고 장갑차를 막아섰던 것처럼 계속해서 군인들을 막으려 했을 것이고 그 상태에서 군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번 계엄 이전에 그리고 장관님 취임 이후에 계엄에 대한 논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전혀 없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모경종 위원** 청장님, 청장님도 취임 이후에 계엄에 관한 논의 있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없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전혀 없었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모경종 위원** 확실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미 벌어진 일을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을 것이고 정말 다행히도 1980년 그날의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바라봐 봅시다.

청장님,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에 대해 혹시 아십니까? 들어 보셨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5·18 때 전남경찰청의 국장이셨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모경종 위원** 그분은 대통령 앞에서, 계엄사령관이 ‘도청 접수해’, 무장하고 도청 접수하라고 경찰에게 지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거했습니다.

조지호 청장님께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한번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리고 시민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경찰이 국민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당연히 이때까지 우리 선배들이 그래 웃듯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당연합니다.

○**모경종 위원** 방첩사령관이 선관위를 갔다…… 방첩사령관이 선관위에 가는 것을 이야기했다 저는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태를 예방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번 똑같은 질문을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이 당장 내일 대통령께서 전체를 소집하고 사실상의 통보를 한다면, 계엄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장관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고도의 통치행위기 때문에 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한번 각오를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더 강력하게 조언을 드리고 만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또 대통령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 각료가 그것을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취지에서 국회를 장악한다든가 봉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국무회의 때 논의도 안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경종 위원** 그런 말씀 없으셨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의결이 정상적으로 가능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것을 무슨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통제하는 의도 자체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그것을 모르……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논의된 적 없으니까 막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발령을 해도 국회에서 언제든지 의결하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내란죄를 획책한다면 가장 먼저 국회를 막았겠지요.

○**모경종 위원** 막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경종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실패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장관님, 실패하신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요……

○**이광희 위원** 저희들은 신변의 위협,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것은 선포를 실패의 여부를 따질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포가 된 거고요……

○**모경종 위원** 그러니까 장관은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선포가 된 거고 국회 의결에 따라서 해제가 된 겁니다.

○**모경종 위원** 장관의 무력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경찰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내란 사건의 주범이 되느냐, 공범이 되느냐 아니면 나는 상관없었다라는 것을 보이느냐에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지금 발언들이 다 무겁게 받아들일 점을 명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일에 퇴근하실 무렵에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대충 몇 시쯤에 대통령실로부터 대기 하라는 명령을 받으셨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6시에서 6시 반 사이 같습니다. 제가 그날 6시 반에 약속이 있어 가지고 나가기 직전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김성희 위원 약속에 가셨나요?

○경찰청장 조지호 못 갔습니다.

○김성희 위원 왜 못 가셨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사무실 근처에 대기하라는데 저녁 약속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성희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대기하셨나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저는 일단 밥은 먹어야 되겠길래 공관에 가서 저녁을 먹고 마침 다음 날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마약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못 봐서 잘됐다 싶어서 마약 관련된 자료를 봐야 되겠다 하고 들어와서 그것 보고서.....

○김성희 위원 들어와서는 어디에 들어와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마약.....

○김성희 위원 청장은 지금 말씀 가려서 하셔야 되는 게 언제 나가셨..... 6시 28분에 경찰청에서 나가서 20시 02분에 경찰청 들어오셨는데.....

○경찰청장 조지호 그때는 제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아마.....

○김성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찰청장의 청사 출입기록을 제가 들고 여쭤보는데 ‘내가 안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아마도 저를 공관에 내려 주고 차가 들어왔다가.....

○김성희 위원 경찰청장의 청사 출입기록을 요청했지 경찰청 차량의 청사 출입기록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차를 타고 출입하기 때문에 아마 제.....

○김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중한 상황에 본인이 몇 시에 출퇴근했는지 차도 기록 엉터리로 제출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몇 시에 오셨어요, 하여튼? 이것은 가짜라고 치고, 이것은 따로 묻겠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한 10시 다 돼서 온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밥은.....

○경찰청장 조지호 왜냐하면 한 9시쯤에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료가 다 됐다는 전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사무실에 올려놓으면 내가 가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씻고 나왔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10시 전에 계엄 선포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왔습니까, 모르고 들어왔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그다음 날.....

○**김성희 위원** 본인이 지금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는 언론 보고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성희 위원** 그런데 22시에 들어온 것은 공교롭게 들어온 거다 말씀인가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음 날 오전 10시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마약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자고……

○**김성희 위원** 예, 그 말씀 들었고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포고령을 보고 나서 내가 이 사건에서 국회를 통제해야겠다라고 판단하셨다 말씀하셨지요? 그런 거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김성희 위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로 되어 있다인 겁니다. 그리고 1번이 국회 등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를,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보고 국회에 국회 의원들 출입시키면 안 되겠다 판단하신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 1호를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이 민주당이라는 대통령의 허황된 정치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단계는 아니고……

○**김성희 위원** 어쨌거나 포고령 1호 보고……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법 집행하는 기관장으로서……

○**김성희 위원** 자, 이미 다 나온 얘기니까요.

국회를 통제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통제하셨다는 거지요? 헌법기관을 그렇게 하는 것이 국헌문란행위임은 그 당시에 파악 못 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요.

다음입니다. 방첩사에서 수사본부를 구성할 테니까 사람 보내라고 협조 요청 받았다고 하셨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김성희 위원** 어떤 사람을 보낼 계획이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러니까 준비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낼 계획이었느냐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수사관입니다, 수사관.

○**김성희 위원** 어떤 종류의 수사관들을 보내라고 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냥 수사관이라고만 얘기했었고 구체적으로는 실무 단계로 연락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결국, 방첩사는 뭐 하는 곳이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방첩사는 그야말로 방첩하는……

○**김성희 위원** 간첩을 수사하는 곳이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김성희 위원** 포고령 1호에 나오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결국 군과 방첩사를 동원해서 국회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잡아가서 방첩사에서 한 사람씩 수사해서 간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번 내란 음모의 기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거기에 지금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는 제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방첩사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것은……

○**김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인형 방첩사령관마저도 충암고 출신입니다. 결국 이번 이 내란 사건의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은 방첩사를 통해서, 자신의 동문 후배인 방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체포 검거해서 수사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청에 수사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결국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당을 없애려고 했던 윤석열 반란 수괴의 음모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해 두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치셨습니까?

○**김성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입니다.

목현태 경비대장, 질의하겠습니다.

국회경비대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테러 등 각종 위해요소에 대비하고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데 맞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PPT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까도 보셨을 텐데요. 담을 넘는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 들어오는데 왜 담을 넘어야 합니까?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은 임광현 의원인데 담을 넘다가 경비대원에 끌려 가지고 손을 다쳤어요. 저도 지금 허벅지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목현태 경비대장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다음 것 들려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계엄군 때문에 국회 마당에 헬기가 착륙해 있고 국회 본관을 침탈하고 있어요. 국회의장과 당대표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경찰은 뭐 하고 있었지요?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모여 있는 시민들을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이것?

그 자리가 굉장히 노른자 자리 아닌가요? 지금 현장에서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고 있는 후배 경찰관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목현태 경비대장은 국회 경비 업무를 실패했고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를 방해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내란 음모에 가담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직

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그러실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저는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하여 내려진 지시를 듣고……

○**박정현 위원**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을 합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그 지시가 정확하게 지시된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국회경비대장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따위 말 할 거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위원님, 제가 지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에게 물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김봉식 서울청장님, 국회 봉쇄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것 어떤 의심도 없이 실행하셨나요? 위헌적인 사실이라는 것 모르셨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포고령 이후에는……

○**박정현 위원** 포고령이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는 헌법기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구체적 판단도 안 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서울경찰청장이?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서울청장은 용산 핫라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음모에, 내란 음모에 가담했다면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겁니다.

지금 조지호 청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 중요한 협의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위에 회부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조지호 청장님, 국회 봉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이 전화했다고 했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오늘 국방위에서 추미애 의원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었지요? 질의를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계엄령의 목표가 국회라는 것을 알았느냐? 언제 알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계엄사령관은 ‘목표라는 것은 제가 몰랐다’, ‘왜 몰랐나?’ ‘화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때 국회에 경찰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알았다’, ‘군에 명령 하달을 했느냐?’ 그랬더니 ‘명령 하달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정치 금지 같은 포고령 내용도 모르고 날짜만 수정하고 사인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 했습니다.

정말 계엄사령관이 전화해서 국회 봉쇄하라고 한 것 맞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래잖아요, 지금.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것을……

○**박정현 위원** 김용현 국방장관이 전화한 것 아니에요?

○**경찰청장 조지호**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은 곧 밝혀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은 계속 ‘국회를 통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를 통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물리적 행사나 위협을 막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국회 경찰들이 해야 될 국회 통제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꾸로 했어요. 결국은 이것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동조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벌은 반드시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경찰 간부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일선 경찰 공무원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2·3 비상계엄 시도 사건과 관련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나와 주세요.

우리 조국혁신당이 어저께 12명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12·3 사태에 대해서 고발한 것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누구누구 고발됐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중의 한 명인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제가 아까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정춘생 위원 대신에 그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행안부장관, 계엄사령관 박안수,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관련해서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사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아까 양부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수사의 우선순위, 우선적으로 할 조치에 대해서 조속히 검토하라고……

○정춘생 위원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엄중하게 수사를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출국금지·체포영장도 발부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행안부장관님,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별문제 아닌 것처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해제됐다 이런 것처럼 대통령이 마치 경고하려고 했던 거다 이런 거랑

똑같은 스탠스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것 너무 안이한 국민 호도용 답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는 않고요.

○**정춘생 위원**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보좌진들하고 당직자들이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사무집기로 해서 그 진입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도 다 체포됐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뉴스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장 복도로도 계엄군들이 막 다닙니다, 체포하라. 체포 미수 사건입니다. 미수에 그친 거예요. 체포됐으면 해제를 못 했을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렸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이상하게도 기존의, 예전의 계엄 조치와도 굉장히 달랐어요. 헌법기관이 입법부와 선관위를 간 거예요. 선관위에 대해서는 명태균 관련된 여론 조작 데이터 어떻게 해 볼까 이런 의심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일, 국정을 안 하고 계속 극우 유튜브를 본다는 소문은 자자할 겁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온갖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들을 제기해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자료들을 혹시나 해서 가져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보다도 더 먼저 선관위로 갔던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까도 열핏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과 법률 테두리 내에서 계엄이 진행된다고 전제를 한 겁니다.

○**정춘생 위원** 아니,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변이 일어났습니까, 그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계엄이……

○**정춘생 위원** 아무것도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계엄 선포되고 나서 국회에 즉시 통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고하지 않았어요. 뭐가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 했다는 겁니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선포였습니다, 그 자체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무회의 외의 그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정춘생 위원** 그런데 그것에 근거한, 포고령에 근거해서 경찰청장은 국회 통제를 지시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청장님, 명하나가 됩니까, 명하나? 명하나가 됩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명하나는 서울청장을 말합니다.

○**정춘생 위원** 청장의 지침이지요, 명하나 지침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정춘생 위원** 명하나 지침이 우리 보좌진들하고 당직자들이 막 들어오려고, 못 할 때 그 술한 무전기에서 들렸던 명하나 지침입니다. 무슨 근거로 국회 통제를 막았습니까?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생각 못 하십니까? 그리고 청장님,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지시가 왔으니까 그냥 따라야 됩니까? 국민의 안전은……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는……

○**정춘생 위원** 혼란스러울수록 엄격하게 해야지요. 왜 대통령은 지금 전시도 아니고 사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위기 상태도 아닌데 이런 엉뚱한 정신 나간 계엄 선포를 할까. 국가의 기관장으로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야말로 헌법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이게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분명히 우리는 수사를, 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외에도 국회에서 이 현안질의로 안 밝혀지는 부분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할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나는 이 12·3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장 위험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지금. 처음에 저희도 설마설마했어요, 설마설마. 그런데 12월 3일 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정말 그 설마가 설마가 아니구나.

엄중하게 상황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계엄은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춘생 위원** 아니라니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일부 위원님들은 그걸 자꾸 내란죄 내지는 12·12와……

○**정춘생 위원** 아니, 일부 위원이…… 우리가 모두 동의합니다, 그 내란죄라는 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이어서 말씀하시면 그런 건데요. 아까 국회 봉쇄 문제에 대해서만도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회 권한행사를 막아서는 안 되고 막을 의도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춘생 위원** 막으려고…… 무장한 계엄군이 왜 들어왔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광희 위원** 막으려고 들어왔어요!

○**정춘생 위원** 행안부장관이 모른다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국무위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건 계엄사령관이 하는 일이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정춘생 위원** 그리고 그…… 아니, 국방부장관이 견의한 부분도 문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영역이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거기서 진행되는 것은요……

○**정춘생 위원**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면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장관님 모르시는 건데, 백번 양보해서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물론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 현장에 없었을 때 위원님들께서 어떤……

○**용혜인 위원** 그럴려던 게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데 어쨌든 국회를 봉쇄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그런 취지에서 경찰이 의지가 있었으면 못 막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혜인 위원** 아니요, 군부대가 들어왔잖아요, 국회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 어쨌든……

○**이광희 위원** 아니, 총을 들고 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어요!

○**용혜인 위원** 군부대가 왜 들어왔냐고요! 권능행사를 방해하려고 들어왔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거는 이제……

○**이광희 위원** 그리고 공격용 헬기가 떴고요, 장갑차가 들어왔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런데 그건 모르겠다면서요, 무슨 의도였는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제가 그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장관님, 장관님 집무실에 유리창 깨고 군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용혜인 위원** 그 의도가 뭐였는지 모르신다면서요. 그러면 최소한 국회의 권능행사를 막으려던 거 아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셔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냥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막았는지를 좀 확인해 봅시다.

○**위원장 신정훈** 장관님, 지속적으로 추측성 발언으로 이 현안질의 장소를 회화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었던 것은 역사적인 진실을 겪었던 것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막지 않았다고요? 경찰이 막았다고 하는데 장관은 막지 않았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막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춘생 위원** 말장난하십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회 권한행사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얘기를 할게요.

○**용혜인 위원** 그런데 왜 막아요.

○**박정현 위원** 아니, 군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장이 걸어서 이 국회 본관에 출입을 못 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장이 담을 넘었단 말이에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담을 넘었어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담을 넘다가 발가락을 상했어요. 임광현 의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심정은 대단히 위중했어요.

○**정춘생 위원**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장 신정훈** 그리고 그 시기가 경찰이 외과 방어를 봉쇄한 것뿐만이 아니고 군이 헬기를 타고 진입하는 상황을 지금 경찰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 상황을 뒷받침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경찰이 국회를 막지 않았다, 막을 의도가 없었다, 국회 권한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말 행안부장관으로서 계엄령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처신이라든가 그런 역할·책임 이것에 비춰 보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인식 자체가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접근하는 데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각료로서의 그런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상황을 상당히 염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국민들께 불편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초반에 솔직한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들어 보니까, 경찰청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처음 당하는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업무에 상당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입을 통제했다가 일부 신원 확인하고 들여보내고 다시 또 통제하고 이런 경찰 자체도 업무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이것을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통제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조직적으로 했어요, 조직적으로.

장관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성곤 위원 서울청으로부터 국회 출입통제 기록을 받아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못 봤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여기 발언권 주셔요.

○위원장 신정훈 예,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시려면 계속 주장하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또 수사기관이라든가 관계기관이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행안부장관님, 잘 들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성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청장님, 10시 35분경에 관련되어진 정문에 경찰 배치를 했지요? 기관보고에 의하면 일시출입통제를 10시 46분경부터 했어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위성곤 위원 그렇게 했고, 23시 06분에 의원·관계자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무선 지시를 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22시 46분부터 23시 06분까지 사실상 전체 통제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결과적으로는……

○위성곤 위원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23시 37분부터 다음 날 01시 01분까지 전면 통제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위성곤 위원 국회의원이 올 수가 없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그때는…… 예.

○위성곤 위원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상황이었지요? 알고 계셨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인 이유를 알았습니까, 혹시?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국회의원들께서 들어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거는 본회의,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위성곤 위원**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장관님, 이렇게 통제를 한 거예요, 국회에 들어갈 수 없게끔.

이 법은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에 위배됩니다.

수사본부장님, 관련된 수사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폭력이라 하면 싸움만이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물리적 행위까지 포함되어집니다.

국회법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구조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관련되어서, 앞으로 보시면 형법 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보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란죄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어디를 얘기하지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어디 조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성곤 위원** 문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 91조 제2호 말씀하시나요?

○**위성곤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 국가기관은 국회도 포함될 테고요. 행정부도 포함되고 굉장히 폭넓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국회·대통령·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자치단체 등을 국가기관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의 회의를 방해한 거예요, 이 행위는. 국회의원이 본회의가 소집될 수 있는, 소집을 방해한 행위가 지금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그리고 국회경비대장이 한 행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찰청장님, 방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의를?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방해할 목적이 없었는데 왜 막았어요?

○**이광희 위원** 제가 막혀서 못 들어갔어요.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앞서 얘기했지만 앞서 20분간 그리고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 그 피크타임에 전부 막았기 때문에 국회의장, 이광희 위원 등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담을 넘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이것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한 거고 본회의를 방해한 것에 대한 것이고 이건 내란죄 성립이 됩니다.

우종수 수사본부장님, 관련되어서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해서 지금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게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건이 안 맞고 법률도 위배되었고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방해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형법 87조와 91조에 의해서 내란죄 성립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에 가담한 조지호 청장, 서울청장, 경비대장은 내란 가담자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 잠깐 멈춰 주세요.

청주시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국회경비대의 주 역할이 뭐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국회청사 경비와 의장 경호 그리고 국회 내무질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등 각종 위해요소에 대비하고 국회의 안전확보 및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 본연의 임무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회경비대 본연의 역할인 국회의 안전과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을 했나요? 어떤 것을 하셨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저희에게 하달된 임무는 국회 내부로 진입하는……

○이광희 위원 국회의원들 막은 거지요? 국회 회의 못 하게 하고?

자, 다음이요. 그 국회의 봉쇄……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의원뿐만 아니라 무질서를 유발할 수 있는……

○이광희 위원 무질서요? 국회의원이 입장하는 게 무질서입니까?

국회 봉쇄 작전 지시 누구한테 받았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서울청 무전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누구요?

서울청장님, 지시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무전 지시 말씀입니까?

○이광희 위원 아니, 지금 국회의 주요 경비 역할을 맡는 국회경비대가 대개 국회의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지시를 했냐고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구체적인 무전 지시는 계장급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방금 위성곤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법 제165조,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위반입니다.

계엄 선포 후에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지켜야 될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의결을 방해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조직이 존재 가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잘 차단하라는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광희 위원** 헌법이 보장하는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것이, 국회의 안전과 독립성을 수호하는 고유한 업무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지금 제대로 일하지 않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계엄군의 헬기 착륙 지원과 병력 이동에 협조했다는 말이 있는데 협조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계엄군 헬기 착륙하고 계엄군이 병력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예.

○**이광희 위원** 그러면 막았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막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광희 위원** 왜 안 막아요? 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지 않았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서 하강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대장님,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주 업무라면서 그거를 위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총을 들이밀고 국회로 들어오는 이런 범죄자들을 막지 않는 게 그게 고유의 업무입니까?

지금이요 국회경비대의 작전 지시는 도대체 누가 한 건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누가 한 겁니까, 그렇게 하라고? 원래 고유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계엄군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조하고 이렇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위협적이고 위협적이지만 계엄포고령에 나온 정치활동 금지를 수행하기 위한 이런 겁니까? 이것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죄에 동조하신 거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엄중한 상황이었고 내란죄라는 부분은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엄중하니까 엄중할 때 원래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그 엄중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회를 지켜야 될 국회경비대가 경찰 소속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시점에 본연의 목적인 국회

수호를 방기하고 오히려 내란행위에 동조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회경비대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 국회경비대를 해산하고 해체하고 다시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경비대를 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국회의원들을 막고 국회의 결의를,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업무를 방해하는 조직이라면 그게 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지요? 해산하셔야지요.

서울청장님, 조지호 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해산하시고 다시 국회에서 경비대를, 국회를 보호하는 경비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청장님, 제가 조지호 청장님 처음 뵙을 때부터 실무 경찰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내가 충분히 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해 왔지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사실은 국회경비대의 연혁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수반이면 행정부 쪽이 입법부를 보호한다고 하다 보니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해를 가한 사건이에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의경들을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면서 당초 계획은 국회경비대의 경찰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거였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당시에 정부종합청사에 있던 경비대도 다 철수를 했고 한데 몇 년 전에 의장님의 요청으로 국회경비대를 잔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국회경비대를 민생치안인력으로 전환 배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강도를 지키라고 했더니 강도에게 도움을 주고……

아이,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해도 진실을 밝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상민

장관과 조지호 청장의 태도를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유지가 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월간중앙 보도를 보니까 어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종북 좌파를 잡을 테니 당이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이 또 내려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안감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오전 질의에서 경찰청장의 답변은 지금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 대법 판례는 잘 모르겠고 내 판결은 대법까지 가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과연 오늘 대한민국 경찰이 내란을 도모하는 세력인가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내려질 질문이라고 보고요. 다시 얘기하면 경찰이 애국자인가 반역자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조지호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비상계엄을 내려서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헌법 위헌적인 포고령을 내린다면 지난 12·3 내란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을 동원해서 또 국회를 봉쇄하실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거는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용혜인 위원 봉쇄하실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지금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데 그러나.....

○용혜인 위원 국회 봉쇄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 헌법과 법률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인 것 명확히 인지하셨을 거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충분히 내용을..... 그때하고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는 말씀 드릴 수.....

○용혜인 위원 국회를 봉쇄해서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경찰이 동조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용혜인 위원 동조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혜인 위원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경찰이 동조하시겠냐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윤석열 내란수괴의 명령을 따르실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 헌법을 따를 것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누구의, 개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용혜인 위원 됐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겁니다.

○용혜인 위원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장 묻겠습니다.

내란수괴의 하수인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 쓴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따르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용혜인 위원 답변 못 하시겠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가장 상위적인 부분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위원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따르셔야지요.

여기 있는 내란 공범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음에도 내란에 가담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공무원 전체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데 여전히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왜 대한민국 경찰이 갑자기 45년 전으로 돌아간 건지, 도대체 이 내란수괴에게 공모해서 경찰청장에게 무슨 부귀영화가 따라온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비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시간 잠깐 멈춰 주세요.

경비대장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울청장 지시받고 국회를 봉쇄했다, 맞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예.

○용혜인 위원 그 행위 문제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용혜인 위원 문제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인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용혜인 위원 답변 못 하시겠다는 거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저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위원 무엇이 당신의 임무입니까? 무엇이 경비대장의 임무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계엄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위원 국회경비대는 국회를 경호하는 것이 임무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대통령의 명령이 위중하다고 생각하고.....

○용혜인 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회를.....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에 소속된 행정공무원으로서 그 명령에 대해서는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요, 대법원에서 위법·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경비대장도 내란의 공범인 겁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그 임무를 수행할 당시에 위법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용혜인 위원 경비대는 국회를 경호하는 것이 임무 맞습니까? 임무 맞습니까, 국회를 경호하는 것?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용혜인 위원 본인들의 존재 이유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회 봉쇄랑 계엄군 오는 거 국회의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용혜인 위원 시간 없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이것 어렵습니까?

의장한테 보고 안 하셨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용혜인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의장한테 바로 연락하고 대응을 하셨어야지요. 당시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 작전의 목표가 뭔지, 누가 출동을 시켰는지도 모르는 게 현시점의 상황입니다. 오늘 국방위 질의에서 국방부가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에 경비대장으로서 헬리콥터 이용해서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내에서 작전을 펼친다라는 것 어떤 절차로 전달받으셨습니까? 전달받으신 적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전달받은 적은 없습니다.

○용혜인 위원 들은 바 없다. 그러면 국회경비대는 하늘에서 헬기를 타고 무장한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거 그냥 눈 뜨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저 사람들이 계엄군인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지 적국에서 보낸 군인들인지 알 수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손 놓고 있었다, 의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계엄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의 업무 수행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용혜인 위원 당연히 일차적으로 보고하고 지침 내려오기 전까지 국회 경호를 하셨어야지요. 위법한 계엄군의 국회 난동에 대해서 국회경비대가 국회를 지키지 않고 자동문처럼 문을 연 겁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위법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게 지침을 받은 바가 없는데 계엄군인지 테러리스트인지 어떻게 확인하셨느냐고요. 국회에 소총으로 무장한 공수부대가 활개치고 있으면 경비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그냥 손놓고 보고 있어요?

저는 방호과 직원들이 맨몸으로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랑 싸우고 있을 때 도대체 경찰이 뭐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청장, 서울청장, 경비대장까지 다 내란에 동조한 겁니다. 특히나 경비대장은 헌법기관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임무를 내팽개치고 내란에 가담한 것은 저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경비대장.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같은 상황 다시 발생하면 의장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경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란세력의 요구에 따르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지난번에 국민의 편에 서신 거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그때도 국민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계엄령이 위법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에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혜인 위원 헌법기관을 지키는 임무를 내팽개치고 내란에 가담한 죄질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의원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못 들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예, 듣지 못했습니다. 내려온 지시에 의해서……

○**위성곤 위원** 의원들이 왜 모인다고 생각했어요?

○**위원장 신정훈** 자, 경비대장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본인의 속내를 충분히 온 국민들 앞에서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사태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이 뭔지 본인의 임무가 뭔지 그것도 모르고 대통령의 명을 따르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일이에요? 경찰공무원이 무조건 대통령만 모시면 잘되는 겁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국회의장을 경호하고…… 스스로가 말했잖아요. 국회 경내로 무장병력이 침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계엄군일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명을 받은 계엄군이 어떤 짓을 해도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통해서 정말 경악할 지경입니다.

들어가세요.

본인들이 출입하는데 신체 수색당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국회를 담 넘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까지 만든 경비대장이 저렇게 당당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대통령한테 무슨 약속받았습니까? 잠시라도 춘풍월이 계속될 것 같아요?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중에 윤건영 위원과 모경종 위원은 1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조지호 청장님, 12월 3일 저녁에 용산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저녁 시간에 대기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 전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대통령실 관계자입니다.

○**이상식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장 조지호**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식 위원** 왜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건 보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식 위원** 보안?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보안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음모에 동조한 세력이 누구냐, 계엄 준비한 세력이 누구냐 이걸 확인하는 데 청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밝혀질 텐데 지금 빨리 말씀하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대기해야 되는 내용을 몰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는데 본인도 모르는데 그런데 일단 전달만 합니다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모르지만 그건 좀……

○**이상식 위원** 아니, 조지호 청장이 그 사람을 두둔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엄중한 자리인데 여기 와서까지 그 사람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못 한다 이건 저는 커다란 잘못을 범한 국가기관, 헌법기관인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못 해 준다는 거는……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조지호 청장,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국가공무원이 전화, 대통령실에 있는 공직자가 전화했을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 관계자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관계자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왜 밝히지 못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서……

○**위원장 신정훈** 단순 전달자니까 더 밝히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건과 관련이 있는 분 같으면 제가 다르겠지만……

○**위원장 신정훈** 관련이 없으니까 더더욱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방첩사령관이 전화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대통령실 관계자 누구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공적업무 아니었어요? 사적업무였습니까?

○**이상식 위원** 공적인 업무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공적인 업무입니다.

○**위성곤 위원** 공적인 업무인데 왜 그걸 밝히지 못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건 제가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봤는데 본인도 모르는데 그냥 전달만 해서, 전달만 하는 거니까……

○**이상식 위원** 아니, 그러면 더더욱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참 답답하네.

○**경찰청장 조지호**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요.

○**위성곤 위원** 아니, 공적인 일을 왜 얘기를 못 해요?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요,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경찰청장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는데 국가수사본부장님, 그날 즈음 해서 앞뒤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전화를 받은 사실 없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최근에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최근에 없어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이상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런 걸 했잖아요. 업무협약식, 6월 28일 날 했잖아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건 6월의 일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6월 일이고 그거 보면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협조하고 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없어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조지호 청장님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전화를 받았을 때는 수사인력 좀 운용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는 12월 3일 날 광주청 일선 수사간부 간담회를 마치고 제주에 있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방첩사령관 이 사람이 선관위에도 이렇게 관여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한번 더 밝혀 봐야 되겠고요.

행안부장관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통치행위 자꾸 말씀하시고 또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가담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시는데 저는, 평소 우리 장관님 저희들한테 당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과 오늘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끝으로 조지호 청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헌법과 법률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지요? 헌법과 법률에, 계엄법도 보면 4조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대통령이 즉각 통지를 해야 되고 국회가 폐회가 됐으면 집회까지 다시 요구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국회의원이 한 곳에 모이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방해했다, 저는 이게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요.

제가 조지호 청장 청문회 할 때 아니면 또 업무보고, 청문회 할 때 인사말 하여튼 거기서 가장 눈에 띄게 주의해서 본 글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거였거든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조지호 청장은 국민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권력만 바라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엔 여기에 앉아 있는 장관님이나 청장이나 서울청장 이분들은 상사를 잘못 만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사를 잘못 만났다고 해서 본인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은 특히 시키면 시킨다고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가치 판단, 법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을 다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요. 앞으로 똑같은 사안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정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편에 서는 그런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 위원 행안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확 계엄 해 버려?’라고 대통령이 자주 이야기했다는 증언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관도 대통령이 여러 장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 보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 본인이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강변했다는 보도도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은 외신에게 비상계엄을 헌법의 틀 안에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던 통치행위였다라는 장관님의 오늘의 답변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장관 본인이 판단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엄,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불법도 없었고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게 맞지요, 대통령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그분 생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 용혜인 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는 또 앞으로도 경고성으로 확 계엄 해 버릴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용혜인 위원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상태에 계엄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경고성으로 계엄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탄핵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우니까 비상계엄을 경고성으로 내렸다,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를 탄핵했는데 또 계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통령님의 생각을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요.

○ 용혜인 위원 그래서 지난 12·3 비상계엄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건에 맞지도 않는 비상계엄을 자기 기분에 따라서 확 해 버리는 지도자, 제정신 아니잖아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용혜인 위원 12월 5일 감사원장 그리고 검찰 탄핵해도 비상계엄 할 만큼의 문제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통령님도 법조인이시고요.

○ 용혜인 위원 왜냐,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니까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게 가볍게 판단하시는 분 아닙니다.

○ 용혜인 위원 그렇게 가볍게 판단하신 겁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일당들이 말 같지도 않은 고도의 통치행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기분 따라 확 계엄 하는 게 이게 지금 민주공화국의 상태입니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시고요.

○ 용혜인 위원 그게 고도의 통치행위예요, 확 계엄 해 버리고 경고성으로 계엄 해 버리는 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거는 법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 용혜인 위원 장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때가 언제라고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날 8시 한 40분경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용혜인 위원 사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맞습니다.

○용혜인 위원 3월 20일 방첩사 방문해서 충암고 후배들이랑 식사하실 때 계엄 논의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때 충암고 후배는요, 여인형 사령관과 해경 정보국장 둘 밖에 없었고요.

○용혜인 위원 그러면 충암고 후배도 아닌데 왜 가서 식사는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용혜인 위원 계엄령 선포로 구성된 계엄사령부는 충암고 출신들과 육사 출신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군 최고 서열이자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은 어떤 지침도 못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국방위 질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후배인 박안수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계엄과가 있는 합참은 패싱하고 육군총장에게 사령관을 시킨다? 저는 이거는 비상계엄을 빙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위 쿠데타를 성공시키려고 손발이 맞는 사조직을 동원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12·12 쿠데타 당시의 하나회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오늘 조지호 청장은 계엄사령부에 아무 권한도 없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말만 듣고 선관위에 병력을 배치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엄사령부 내에 방첩사령관이 직책이 있기를 합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충암파라는 사실 하나로 경찰청장까지 휘두르는 막강한 권력을 발휘를 한 겁니다. 이 충암파가 손발 맞는 육사 출신 몇몇들과 내란을 주도한 정황이 저는 명백하다고 보고요. 충암파가 주도한 이 계획을 실세인 장관이 몰랐고 논의한 바도 없다?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중차대한 내란 범죄의 혐의자라고 보고요.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서 내란을 모의하고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니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질서를 유린하고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겠다, 내란의 공범으로 남겠다는 이상민 장관에게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요. 끝까지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충암파 일당이 저지른 내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잠깐만요, 용혜인님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꾸 충암파, 충암파 하는데……

○위원장대리 윤건영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충암고등학교 졸업한 또 충암중학교를 졸업한 수십만의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상식 위원 학교 측에서 장관님 같은 분을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지금.

○용혜인 위원 충암고 이사장님이 부끄러운 졸업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박정현 위원 충암고 일반 졸업생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윤건영 장관님, 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면 더더욱 충암 전체 졸업생들을 모욕하는 그런 언급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위원 부끄러운 졸업생이 되신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그래서 충암고등학교 이름을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온답니다. 충암 출신들이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요.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현일 위원 오전 질의 때 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 여론조사 보니까 내란죄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69.5%에 달해요. 그래서 장관님의 생각하고 국민적인 여론하고는 전혀 상이하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란죄 여부를 여론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채현일 위원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혹시 또 2차, 제2의 비상 계엄을 선포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저한테도 문자가 오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또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던 말이에요. 또 부랴부랴 해 가지고 후임 장관을 또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을 만일 2차로 한다고 그러면 건의할 분이 지금 행안부장관님밖에 없는 거지요, 법적으로 계엄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만약에 제2의 비상계엄을 요청을 받는다면 따를 생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 있으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현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께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장관님이 이렇게 건의할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에게 말씀 주셨다시피 저도 법률가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건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겁니다.

○채현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상황 같은 상황이 된다면 장관님이라면 어떻게, 건의할 겁니까, 건의를 안 할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난번 상황이라는 것은, 가정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건의할 상황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건의를 안 한다고 해야지요. 말렸어야지요. 말렸어야지요. 과거에 김용현 국방부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국방위에 ‘지금 세상에 무슨 계엄이 되겠냐, 대통령이 시켜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했습니다, 건의를. 심각한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김용현 전 장관님 입장과 제 입장은 다릅니다.

○**채현일 위원** 그리고 아까 국무회의 세 번 했다고 그러잖아요. 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 때 그때 계엄사령관 임명한다는 그 내용도 같이 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되면…… 그 국무회의는 언제 했어요, 그러면 따로? 따로 별도 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건 따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안 했으면 그거 불법인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건 법령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채현일 위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국무회의는 두 번이었고요. 마지막 한 번은 총리께서 내각 대응을 위한 소집이었습니다. 정확히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국무위원들이 모인……

○**채현일 위원** 아니,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려면 계엄법에 의하면 명확하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한다는 게 나와요. 만약에 그 말씀을 한다면 이것은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되게 중요한 발언이세요, 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러냐면 계엄 선포를, 10시 28분에 국무회의를 합니다. 하고요. 1시간 후에 계엄사령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 때 계엄 선포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사령관 임명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계엄사령관은 불법 계엄사령관이고 이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명확히 나온 겁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사령관 임명 절차가 위법이라 해서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계엄법에 나온다니까요, 그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요.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상의 하자가 계엄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거지요. 두 개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채현일 위원** 그거는 장관님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나중에 사법적 처리가 나온다면 그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 모경종 위원 저는 질의보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선관위에 온 부대 병력들의 마크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확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알려 줄 수 없다고 해서.....

○ 모경종 위원 인상 착의는 어땠나요? 무슨 무늬를 입고 있던가요, 무슨 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제가 정확하게 그 CCTV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 모경종 위원 CCTV 관련된 내용을 빨리 좀 전달해 주십시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셔서 그게 잘 겁니다.

○ 모경종 위원 22시 33분에 중앙선관위에 병력들이 배치됐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국회에도 그 시간에 배치를 할 것을 목표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국회를 장악하는 데 실패했고 다행히 우리가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2차 비상계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대통령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희 위원님.

○ 김성희 위원 저는 지난 12월 3일에 벌어진 내란 사건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대통령의 사적 조직과 공적 정부기관이 뭉쳐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윤석열 왕정을 세우려는 쿠데타 기도였다고 봅니다.

무력 담당을 맡은 충암고 동문 김용현이 계엄령 선포를 주도하고 계엄사령관을 제치고 국회에 공수부대를 파병해서 국회 점거를 시도했으나 공군과의 지휘체계 혼란으로 비행 절대금지 구역 내 비행이 늦어지면서 헬리콥터가 늦게 도착해서 23시보다 늦어진 23시 40분에 국회를 점거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일사불란한 국회 집결, 보좌진들과 시민들의 혼신적인 투쟁으로 국회 점령에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와중에 검거 담당이었던 충암고 동문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경찰과 법무부, 검찰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수사본부를 구성하려고 회책을 했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폭력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을 때 나오는 그 폭력치한 종북·반국가세력, 즉 민주당 다수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척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첩사령관이 구성하려고 했던 수사본부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고령과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던 이념 파트를 담당하는 충암고 동문,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검 과정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방첩사가 법무부, 검찰, 경찰에 무엇을 요청했고 그 안에서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지 특검 과정에서 다 밝혀낼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진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참사가 모든 실수의 총합으로 일

어나는 것과 정반대로 이번 내란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람들 쪽의 모든 행운의 총합으로 실패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조금만 늦게 모였다면, 그때 공수부대가 11시에 예정대로 국회에 진입했다면, 총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들의 정의로운 저항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있었을지 아니면 어두컴컴한 방첩사 수사실에서 ‘너, 빨갱이지?’라는 취조를 당하고 있었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엄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국회의원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유신 국회를 구성하는 것,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감옥에서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내란은 실패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은 함께 모여서 내란 주동자들을 끌어내리고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그는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시민의 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수하들의 내란 음모, 끝까지 분쇄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김성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이해식 위원님 질의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하시고.

양부남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양부남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선관위 사무총장님, 이 보고서에 보면 12월 3일 날 22시 33분에 과천청사에 군이 온 게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CCTV 확인한 내용입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의문이 든 게 10시 25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는데 8분 만에 배치가 끝나 버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24분이니까 9분……

○양부남 위원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요, 군부대가? 주변에 아주 가까운 군부대가 있는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는 잘 모릅니다.

○모경종 위원 방첩사령부가 가까이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양부남 위원 그래서 사무총장님이…… 제가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가를 보고 싶어서.

10시 25분에 담화를 발표하고 30분에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3분 만에 부대가 이렇게 도착했는지, 사무총장의 책임이 아니라 이걸 사전에,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군부대가 주변에 매복을 했다든지 대기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어서 한번 짚고 싶고요.

경찰청장님, 제가 오전에 중앙선관위 경력 배치를 누구한테 지시받았냐고 물어봤어요. 아마 속기록에 써졌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본인이 판단했다고 했고 제가 재차 질의를 하니까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사령관이 아니고 사령부라고 말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계엄사령부라고 했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양부남 위원 그런데 방첩, 여인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그것이……

○양부남 위원 그러면 오전에 위증했네?

○경찰청장 조지호 그게 아니라요, 그것이 하나의……

○양부남 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거 시간이…… 됐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따질 문제입니다.

방첩사에서는 검찰에도 검사를 파견 요청하고 법원에도 파견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대를, 수사본부를 차리는 것이지요.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경찰관, 수사요원 경찰관 요청을 받은 시간이 정확히 몇 시였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두 번의, 제가 한 번 받았고 그런 요청을 실무적으로 받았다고 저희
국장한테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양부남 위원 어떤 게 빨라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직접 받은 게 빠릅니다.

○양부남 위원 직접 받은 게 몇 시였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게 정확한 시간은 기억 못 하겠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약 한
10~20분쯤 지난 후 정도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10분? 오케이.

그래 가지고 언제까지 보내 달라던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준비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 요청받고 별다른 지시는 하지 않았었는데……

○양부남 위원 계엄이 선포되고……

○경찰청장 조지호 그 뒤에 국장이 별도로 또 똑같은 이야기를 보고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일단 준비만 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그 조를 짰습니까, 파견 명단을?

○경찰청장 조지호 아닙니다.

○양부남 위원 안 짰다?

○경찰청장 조지호 예.

○양부남 위원 그래요?

○경찰청장 조지호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다음에 서울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청장, 선관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이 철수한 시간은 오전 1~2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7시가 넘어서 철수를 했어

요. 왜 그랬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아침 7시 말씀입니까?

○양부남 위원 예.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그 전에 벌써 해제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일반인들 출입을 시켰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중앙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

○경찰청장 조지호 중앙선관위는 경기남부경찰청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중앙선관위, 여러 가지 의심이 있어요.

철수 시간을 보면 07시 14분, 07시 9분에 철수를 해요, 국회는 1시 2분에 다 철수를 했고. 군은 01시 58분, 02시 24분에 철수를 했는데 왜 경찰은 무려 5시간 이후에 철수를 한 이유가 뭐였는지……

○경찰청장 조지호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군병력의 철수와 상관없이 우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계속 그때까지 경력을 유지한……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부남 위원 왜 선관위만에 대해서 우발 상황이 가능한 부처로 생각했냐 이거예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경기남부청장이 판단을 했고, 제가 그 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는 했지만 그 뒤에 철수했다는 보고는 못 받았기 때문에……

○양부남 위원 아니, 내가 배치…… 잠깐, 배치를 내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 다 철수 했는데, 국회도 다 철수했고 선관위에 군도 철수했는데 왜 경찰은 무슨 미련이 남아 있어서 선관위에 대해서 이렇게 7시 넘어서 철수했냐 이 말이에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그 자체가 군하고 저희들하고 의사 연락이 전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관련 주변에 우발 상황 대비……

○양부남 위원 아니, 계엄 해제가 04시에 됐는데 7시까지 왜 철수를 안 했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 쉽게…… 여기 국회 앞에도 계속 집결된 인파가 있어서 아침 7시경에 다 해제를 한 겁니다.

○양부남 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서울청장, 61기동대 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양부남 위원 61기동대, 그날 파견됐던.

나를 보고 해, 나를 보고.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자료 볼 것도 없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양부남 위원 내가 신문에서 보고 질문을 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면서 61기동대장하고 나눴던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내가 이준석 의원이다’ 그러니까 61기동대장이 ‘그래도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상부에다 전화를 하더니 안 된다고 제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61기동대장으로부터 무전 전화를 받고 들여 주지 마라고 지시를 한 사람이 서울청장이신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저는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는 그것을 보고받은……

○양부남 위원 그러면 누가 그렇게 못 들어가게 지시를 한 거예요? 기자가 61기동대장한테

질의하니까 답할 수 없다고 했던데.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확인해서 의원실로 알려 주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양부남 위원 됐습니다.

.....

○채현일 위원 위원장님, 잠깐 확인 질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 아까 되게 중요한 발언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계엄법 5조에 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행안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사령관이 임명됐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강변했는데 불법적으로 임명된, 권한도 없는 계엄사령관이 계엄군을 국회에 점거하도록 파견하고 국회를 통제하도록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모든 행위가 불법이고 위헌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고, 이번에 비상계엄이 내란죄이자 모든 부분에서 불법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약간 다르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계엄사령관 임명의 절차상 하자와 계엄 선포 자체의 하자는 분리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현일 위원 속기록을 다시 살펴볼 텐데 아까 분명히 장관님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는 국무회의 심의는 없었다라고 저한테 말씀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들은 기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채현일 위원 ‘없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마 저희가 확인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임명 절차상의 하자와……

○채현일 위원 모든 부분이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는 또 불법적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1분 질의를 먼저 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시간이 넘어가면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윤건영 위원 윤건영입니다.

장관께 질의할 텐데요, 방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엄법 5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장관의 기억으로는 당시 국무회의 심의에 계엄사령관 임명 건은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영상자료 상영)

멈춰 주십시오.

장관님, 조금 전에 장관께서는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활동을 통제한 적도 없고 막은 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윤건영 위원 의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영상을 보시면 일선 경찰들이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다, 국회의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통제가 아니고 막는 게 아니면 뭐가 막는 겁니까? 무장한 경찰이 국회의원 들어가는 걸 막는 건데요. 제발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의정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 멈춰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의정관입니다.

○윤건영 위원 국무회의에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 못 한, 의정관실이 참석 못 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당일 연락 자체가 없었습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예.

○윤건영 위원 이후에, 계엄 조치 이후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 온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누구에게 문의를 했습니까, 의정관이?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에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참석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던가요?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아직도 알려준 건 없네요?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예,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파악 중이 아니라 임시 국무회의가……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제가 지금 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오늘 여기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데 그걸 파악하고 안 왔다라는 건 아직까지 없는 거지요. 즉 임시 국무회의의 법적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국무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행안부에서는 아직까지 확인 안 되고 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파악 중에…… 저하고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임시 국무회의의 성원이 됐는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저희가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고요, 자료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 왜 말을 돌려요? 왜 자꾸 용산을 그렇게 비호하려고 하고 감싸 주려고 합니까, 있는 그대로만 답변하시면 되지. 의정관실에는 아직 자료 온 것도 없고, 국무회의를 담당하는 게 의정관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실의 누군가는 누구누구 참석했고 내용은 이렇다라는 걸 통보하게 돼 있는데……

제가 또 여쭐게요.

국무회의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으면 기록물법 위반 맞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대통령기록물, 그런 속기록은……

○**윤건영 위원** 속기록이든 음성이든 기록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겨져 있지 않으면 기록물법 위반……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대통령기록물법으로, 대통령실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건영 위원** 답변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국무회의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으면 기록물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록물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회의록은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윤건영 위원** 공개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존재 여부를 묻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를 저희가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법적 사항을 지금 답변하시면 되지.

○**윤건영 위원** 제가 법적으로 묻는 거잖아요. 국무회의 기록이 없으면 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국무회의 회의록은 작성돼야 됩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요, 한국말 잘 못 알아들으세요? 국무회의가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다, 속기라든지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으면 기록물법 위반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답을 하시면 돼요.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기록은 남겨져야지요.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 위반인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정훈** 지금, 의정관.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예.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말을 비트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기록물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기록물은 남겨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신정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남겨져 있지 않으면 기록물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묻잖아요.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대통령기록물은 남겨져야 됩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한수 의정관.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예.

○위원장 신정훈 지금 위원님이 질문한 취지를 모르겠어요? 원론적인 답변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아닙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해하는데 그렇게 답변합니까?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대통령기록물은 남겨져야 되고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다면 그건 법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그런 답 듣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

○위원장 신정훈 오늘 이 회의에 나와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이렇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이 시점, 이 상황을 지금 바로 밖에 나가서 행안부 소속기관에 있는 담당자들에게 현재까지의 상황, 그러니까 지난번 계엄령이 발효된, 관련 돼 있는 국무회의 기록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대화했고 전달받은 사항 있으면 있다, 없다를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바로 나가서 준비해 주세요.

아까 오전 질의에서 제가 청장이라든가 장관 그리고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경찰청의 무전기록이라든가 그런 관련 기록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장 답변해 보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무전녹취록 같은 경우는 녹취를 풀어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확인해 주세요.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라 했는데 제출 못 하고 있는 사례, 서울청도 마찬가지.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이따 통화를 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녹취록이 안 되면 음성기록도 함께, 음성기록이라도 빨리 제출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선관위는 CCTV 기록을 전체적으로 다 녹화 중이라고 그러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사본을 뜨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사본 뜨고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양이 꽤 많답니다. 그러니까 외곽에도 2개 있고 청사 밖에도 있고 청사가 4층에, 한 층마다 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그걸 사본 뜨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그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좋습니다. 지금까지 완성된 사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완성되는 내용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경찰청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회의 끝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확인돼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예,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장 신정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 이후에 완성된, 지금까지 준비된 자료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통째로 영상기록이라든가 녹취기록을 그대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번 내란음모 미수사건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선관위에 계엄군 그것도 120명 정도면 다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치된 거고 더군다나 계엄사령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계엄군이 선관위를 침탈한 걸 몰랐고 지금 보니까 윤석열과 충암고 동문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주도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선관위 주요 업무 PPT를 한번 보시면 여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조사팀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하고 분석팀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관리·운영 업무입니다. 이 업무들 하고 계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명태균의 여론조작 사건과 이 문제를 연계할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그래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 데이터가 선관위에 남아 있고 이 데이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을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동원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설명을 드리면 미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결과값도 저희한테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어떠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했는지도 선관위가 지금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로 데이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등록하는 것은 조사 결과값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보면서 가중치나 여러 가지 표본치 다 해서……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말하자면 위법 소지가 있으면 그때 로 데이터를 요구해서 제출받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최근에 명태균 씨가 기소됐고 ‘나를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 바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 대화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게 까이면, 대화 녹취록이 오픈되면 실제로 정권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대거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하나만 보여 주세요.

여기 보시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진입했다 철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갖고 나오고 있어요. 박스예요. 이게 나오고 있는데 사무총장은 없어진 자료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뭘까요? 이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사무총장께서는 일단 계엄군이 전산자료에 접근한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정말 없어진 자료가 없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제가 그 부분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왜 계엄군이 왔을까 그랬는데 아까 명태군 관련한 여론조사 부분은, 실제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사당 청사에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태군 관련한 데 데이터나 그런 자료들은 전혀 저희한테 보고도 안 된 거라서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국회의원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털고 가시려면 일단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 CCTV 영상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여야 간사 협의에 의해서 상임위원회께서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도록.....

○박정현 위원 CCTV로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게 전산자료 접근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게 필요하시다면.....

○박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PPT에 나와 있는 박스 이게 뭔지도 조금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하여튼 확인해 드리겠는데 저 사람들이 들고 들어가서 들고 나온 건지 아니면 우리 건지 보시고.....

○박정현 위원 그것은 CCTV를 보면 되겠지요. CCTV를 보고 들어갔을 때 사진과 나왔을 때 사진을 보면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다음에 의심이 드시면 행안위 차원에서 여야 간사님 협의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시스템을 확인하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응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자료는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박정현 위원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중단된 행안부의 김한수 의정관, 답변석으로 와 주세요. 확인한 사항들을 윤건영 위원님께 보고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저희가 그 회의에 들어가지 못해서 관련 회의 내용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예, 아직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인원수에 대해서, 어떤 장관이 참석했다는 것도 없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의정관 김한수** 예, 아직 저희도 모릅니다.

○**위원장 신정훈** 기가 막힙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정말 전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계엄령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회의록 하나도 남기지 않고 참석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령이 발효되고 군과 경찰이 동원되고 선관위가 또 장악되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문제 삼아야 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오늘 나오셔서 12·3 내란사태에 대해서 비호하시느라고 굉장히 얘를 쓰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고요. 저희는 조금 전에 중간에 나가서 대통령 윤석열 내란죄에 대해서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요구하는 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포고문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사후에 봤습니다.

○**정춘생 위원** 동의하십니까?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춘생 위원** ‘예, 아니요’ 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습니다.

○**정춘생 위원** 왜 적절치 않습니까? 범죄자 집단입니까? 그것 판단할 수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범죄자 소굴……

○**정춘생 위원** 이 말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시간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요 범죄자 소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셨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정춘생 위원**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춘생 위원** 그렇지 않지요?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다 답변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정춘생 위원** 아니요, 묻는 말에 대답…… 왜냐하면 이 사유로 계엄 선포한 겁니다, 윤석열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건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정춘생 위원**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인정하십니

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습니다.

○**정춘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기 곤란하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통령이 포고문에 쓴 표현 자체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시도 아니었고 사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팩트에 근거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 망상 속의 생각을 가치 판단해서 국회를 그렇게 몰아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당연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춘생 위원** 제가 왜 내란죄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헌법을 뭘 위반을 했나요?

○**정춘생 위원** 전시도 아니고요 사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닙니다. 요건이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자체가 폭동입니다.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해도 국회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1호로 국회, 정당의 활동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그 자체가 폭동이고 내란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립된 헌법기관 선관위를 침탈했습니다. 이것 자체도 폭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엄군의 국회 장악 자체가 폭동입니다. 국회는 계엄세력을 헌법적으로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란죄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우선 장관께 짧게 물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당일 5시경에 울산에 계셔서 국무회의 소집통보를 받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때 통보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위성곤 위원** 국무회의 소집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것은요……

○**위성곤 위원** 언제 아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용산에 도착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회의 시작, 포고령 발표 어느 정도에 알았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게 한 8시 40분경에 제가 아마 용산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위성곤 위원** 8시 40분이면 국무회의 간사로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장관께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무회의 간사는 제가 아니고요 의정관입니다.

○**위성곤 위원** 행안부장관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의정관입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포고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포고령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게 제1번인데 이게 결국은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헌법 77조 제3항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정당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했습니다.

관련해서 조지호 청장님 이 부분이, 포고령 1호는…… 헌법 77조에 비춰 봤을 때 포고령 1항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세밀하게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헌법……

○**위성곤 위원** 전문가가…… 헌법 배우시고 형법 배우시고 다 배우셨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아무리 배워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따로 있는 겁니다. 헌법학자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러면 도대체 뭘 알고 청장하시는 거예요, 다 법률가한테 맡기면?

○**경찰청장 조지호** 전문적인 내용을 그분들한테 의존하는 거고요.

○**위성곤 위원**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자유를 통제하거나 영장제도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을 관할하고요. 국회의 권한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계엄법 제2조는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하면 비상계엄을 할 수 있습니다. 적과의 교전 상태가 있었습니까, 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그건 없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없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습니까, 12월 3일에?

○**경찰청장 조지호** 글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지 않지요? 결국은 이 조항을 가지고 계엄을 선언했는데 그래서 계엄법 위반이라는, 내란이라는 것입니다. 내란은 얘기했지만 형법 91조, 국현문란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선관위와 국회를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청장님, 비상계엄의 조건으로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했는데 적과의 교전 상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없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없었지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이번에 오늘 처음으로 질의하시는 거지요?

○이해식 위원 아니아니요,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 두 번째 질의입니까?

○이해식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두 번째 질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질문이 나와서 이어서 총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끊어졌는데……

최초 10명이 선관위에 투입됐을 때가 결국 한 3분 만에 투입됐다,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제가 보고받은 건 9분입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연설을 마친 시각으로 보면 3분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23분에서 33분.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 직원들 5명 핸드폰을 압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해식 위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정보관리국에 들어가서 서버를 가져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식 위원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해식 위원 지금 박정현 위원님이 보여 준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당시 저희 야간 근무 요원이, 즉 정문에 있는 안내실에 1명이 있었고요. 청사 내 방호실에 1명이 있었고……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 시스템 관제센터에 24시간 관제하기 위한 용역 요원 2명이 있었고 기계실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5명만 있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CCTV를 보면 알 텐데 어떻든 노컷뉴스에 따르면 4·10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육사 출신 장재언 박사는 ‘선관위에서 사전선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개발팀을 가진 정보관리국 정보운영과에서 총선, 대선을 관리하는 선거정보1계 과장을 포함한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여기에 근거해서 서버를 뒤져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 관련해서 특별히 보고받은 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아무런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다만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 계엄령 수칙에 의해서 인적 감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해식 위원** 보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장재언이라는 사람이 선관위 서버까 국민운동본부의 대표라고 해요.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과 함께 지난 대선도 조작이 됐고 또 지난 총선도 조작이 됐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하는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들의 유튜브 동영상을 봤고 이분들의 주장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선관위에 이렇게 막 12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들어갔고 3분 만에 들어들어 가지고 직원들 휴대전화까지 뺏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일단 이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총장님한테 무슨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면 정보관리국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해식 위원**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현태 경비대장님 나와 주세요.

국회의장께서 담을 넘었는데 목현태 경비대장의 역할이 의장의 지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국회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초 22시 28분에 통제를 시작했고 46분에 출입 통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지시한 겁니까, 이것 원래 최초 지시? 아까 답변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모릅니까? 최초의 지시 누가 하셨어요? 경찰청장이 하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제가 계엄 발표가 있고 나서 국회 쪽의 우발 사태에 대비해야 하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서울청에 지시를 한 겁니다.

○**이해식 위원** 국회의원은 왜 막았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이제……

○**이해식 위원** 국회의원도 막으라는 지시를 하신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처음에는 국회의원을 막아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아니고……

○**이해식 위원** 그러면 알아서 한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여기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국회를……

○**이해식 위원** 알았습니다.

어떻든 지금 그러면 누가 정확하게 ‘국회의원 막아라’라고 지시 안 했다는 얘기지요, 아무도? 맞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아닙니다. 그것 무전으로 전원, 전체 통제라고 지시가 됐

습니다.

○**이해식 위원** 전체 통제하라? 국회의원도 통제하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전면 통제는 국회의원도 통제하는 겁니다.

○**이해식 위원** 통제하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이해식 위원** 그것 김봉식 청장이 내린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제가 이야기하고 무전으로 전파가, 다른 직원이 무전해서 전파가 됐다고 보입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서울경찰청장께서는 무슨 근거로 그런 국회의원 막으라고 얘기를 했지요? 헌법 공부 안 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우발 사태에 대비한다.....

○**이해식 위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통과를 시켜야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그래서 위원님, 조금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해식 위원** 그러면 23시 6분부터는, 그것도 김봉식 청장이 내린 지시입니까, 신분증 확인하고 보내 주라고 한 것?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이해식 위원** 그리고 나서 포고령 보고 나서 또 통제를 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식 위원** 포고령이 나온 다음에 또 전면 통제를 했잖아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이해식 위원** 그것은 누가 지시한 거예요? 그것도 김봉식 청장이 지시한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건 제가 지시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포고령이 엉터리잖아요. 그렇지요? 계엄이 선포가 돼도.....

○**경찰청장 조지호**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일옹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헌법이나 이런 것 공부 안 하세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경찰청 내에, 법률적으로 자문 안 받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포고령에 따르는 거예요?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했지만 이것 정말 내란이에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여러분이 국회의원 막은 것, 군인이 국회에 진출한 것 다 폭동이에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었으니까 폭동이고 다 내란이에요, 내란. 내란죄라고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국회에서는 제2의 계엄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국회에

있으면서 상공에서 헬기가 내리고 군인들이 막 내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군인들이 막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눈으로 쳐다보면서 저는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혀 무섭지가 않고요. 오히려 차분해지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번 딱 해 봤습니다.

저는 국민들 마음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2의 계엄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게 다시 발생을 하면 어떤 국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고.

제가 질문보다는요, 정말 눈을 뜨고 귀를 정말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엄에 대한 대한민국 주권자,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끝났습니다.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들어 보면 이 평가는 끝났고요. 이제 심판이 남았는데 외신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다 엮여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외신들 평가들을 좀 정리를 해 보니까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십 년 사이에 최악의 헌법 위기를 초래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걸 보도하고 있고 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도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가 하야하든 축출되든 간에 정치적 미래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요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을 시민들이 거부했고 이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사 통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펼쳤다, 자국의 정치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말실수가 잦아서 논란 없이 한 달을 나지 못한 인물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요 윤 대통령은 하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토록 뻔뻔스러운 쿠데타 시도가 벌어졌다는 건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그가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950년대에 한국전쟁 등 여러 위기 속에서도 벼텨 온 한국에서 독재의 부활을 노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시민과 국회가 단호하고 빠르게 계엄을 거부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이 아직 살아 있다고 평가하면서 불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0여 년 전만 해도 군사정권이 통치했던 한국의 짙은 민주주의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짚고 있습니다.

이런内外의 내용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저 1분만……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2분만 하시지요.

○**용혜인 위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5시 30분 경에 단독 기사가 하나 나갔습니다. 정보관리국에 계엄군이 바로 들어갔다가……

정보관리국이 원래 뭐 하는 곳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정책과 그다음에 정보운영과, 정보보호과 이렇게 세 과가 있는데 어떤 과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전부 들어갔는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그 관제센터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용혜인 위원** 그 부분도 파악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개별적인 과에서 쓰는 컴퓨터에 어떤 이상 접속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파일을 없앤 것이 아니라 복사해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 주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러니까 그것 다 합해서.

○**용혜인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고 해서 그 주장에 찬동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현법기관인 선관위부터 뛰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경비대장이 서울청 지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소총 찬 군인이 들어오는 것 전달 못 받았다고 인정을 했는데 서울청장님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공수부대 국회에 들어오는 것? 전달받으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나중에 그것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용혜인 위원** 언론으로 아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용혜인 위원** 경찰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도 TV를 계속 틀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용혜인 위원** 전달받은 바 없다, 국회 진입에 대해서?

○**경찰청장 조지호** 예, TV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용혜인 위원** 계엄군이 국회로 소총을 차고 들어오는데 경찰이 국회 외곽을 지키고 있는 상황,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방첩사령관이랑 직접 통화를 하시는 와중에서도 그에 대한 작전에 대한 설명은 못 들으셨다?

○**경찰청장 조지호** 방첩사는 국회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용혜인 위원** 아니요, 어쨌든 지금 이 계엄에 관련돼서 경찰 바깥과 계속 소통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러니까 그 소통이……

○**용혜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아무도 경찰청장에게 공수부대가 국회에 들어오는 그 작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청장 조지호** 그러니까 군에서 군 작전상황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혜인 위원** 그러니까 설명 못 들었다는 거지요, 전혀 몰랐다?

○**경찰청장 조지호** 예.

○**용혜인 위원** 저는 아무튼 사실상 국회 장악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그래서 국회 봉쇄에 대한 지휘 명령은 어디서부터 내려온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몰랐다 하더라도요, 사후적으로 진행된 상황을 전반적으로 타임 스케줄로 보면 군 진입 전에 경찰청의 국회 봉쇄 수위가 달라졌어요. 22시 48분 내지는 22시 40분경에, 어떤 시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청이 전면적으로 국회를 국회의원까지 출입을 봉쇄하고 그렇게 격상시킨 이후에, 그 직후에 공수부대가 헬리콥터를 통해서, 24대의 헬리콥터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하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제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TV를 보셔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우리에게 계엄사령관이 전면적으로 봉쇄해라 해 놓고 저 지랄 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국민들은, ‘저러려고 전면적으로 봉쇄했구나’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연관성 있게 생각돼요, 안 돼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것이 상식이지요. 이성을 갖는 공직자가 최소한의 가질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다음이요, 이해식 위원님 2분만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종수 국수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수본부장님, 지난 6월 28일 날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이것은 어떤 계기로 체결하게 된 겁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 전부터 저와 방첩사령관이 상호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 올해부터 안보수사 원년이기 때문에……

○**이해식 위원** 경찰청에서 방첩사하고 이렇게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아마도 안보수사 쪽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아니,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실무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 왔습니다.

○이해식 위원 경호처에서 경호 관련된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군경 이렇게 쭉,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을 통합하는 그런 지휘체계를 갖추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위법적인 시행령이라 좌절이 됐지요. 그 이후에 이런 게 체결된 것 같아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지금 말씀하신 경호처 추진 상황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여기 2조 5항에 보면 ‘각종 훈련 연습 관련 인원 및 장비, 물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한 수사관 및 장비, 차량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이 합수부는 언제 결성되는 거예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합수부는 안보 사건을 하다 보면 저희가 하는 사건에서 군 관련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해식 위원 이게 그런 거지요. 계엄 시기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식 위원 계엄 시기에 합수부가 설치되는 거거든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 합수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의미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계엄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합수부가 꾸려지면 이 합수부에서 경찰하고 군이 공히 수사를 진행을 하는, 예를 들어서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수배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하고, 그런데 경찰하고 군하고 방첩사하고—방첩사가 그것을 담당하니까요—같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 계엄이 정상적이고, 헌법과 법률에서의 계엄이 선포되면 이게 저희하고 군하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요 일방적으로 계엄사령관한테 모든 위임이 됩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서를 군이 이렇게 작성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수본부장 부임하기 이전부터, 원래 작년 2023년 4월에 안보국장이 방첩사를 방문하는 것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이해식 위원 윤석열 정부 이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방첩사하고 교류하는 게 있었어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실무적 차원에서 교류가 계속 있었습니다. 수사정보 교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호 교육도 있었고……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으로 질문을 다 마쳤는데요. 두 분에게 잠깐만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위성곤 위원님 1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장관님, 계엄이 이루어지면 즉시 국회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헌법과 그리고 계엄법에 통고가 뭐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고가 이러한 선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국회에 알리는 것……

○위성곤 위원 국회에 어떤 식으로 알려야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제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아마 서면으로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 행위나 행정적 조치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일반적으로.

○위성곤 위원 그런데 서면, 국회에 통고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한다면 국방부에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식으로 국방부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성곤 위원 아니, 국무위원으로서 관련된 사실들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데 그것은 사후 절차니까요. 선포 이후의 사후 절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위성곤 위원 통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 행위 자체가 발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고 시점이 되어 통고가 되어야 결국은 나머지 계엄령이라든가 이게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는데 실행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포고령도 내리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국회 관련되어서 시간대별로 인력 배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발생부터 종료 시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인력 배치를 했는지 시간 단위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예.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모경종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야간 당직자 등 5명이 핸

드폰을 압수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시간도 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시간이요?

○**모경종 위원** 11시…… 포고령 발표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마 포고령 발표 이전이니까, 계엄군이 들어와서 즉시 한 조치가……

○**모경종 위원** 들어와서 바로 한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유선전화 차단하고 외부와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모경종 위원** 저는 이 지점이 정말 방첩사를 비롯해서 군이, 계엄군이 정말 무도하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계엄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포고령이 발표되기도 전에 중앙선관위에 쳐들어가서 선량하고 무고한 선관위 직원들의 핸드폰을 압수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기존에 이 계엄을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용혜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용혜인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성희 위원** 자료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성희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 지금 말씀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5명의 직원들로부터 어디어디 방첩사가 들어와서 방문했는지도 보고를 안 받으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정문의 안내실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간 당직자는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거기 한 명 그다음에 청사 정문에, 청사 건물 내의 방호실에 한 명 그다음에 관제센터에, 24시간 관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 두 명, 그다음에 기계실에 한 명 이렇게……

○**김성희 위원** 어쨌든 지금 CBS 단독 보도를 통해서 특정 서버에 접근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 건데 선관위원장이 잘 파악을 못 한 것, 사무총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실내 CCTV 등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 방첩사가 어느 사무실에 어떻게 방문해서 어떤 자료에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지막으로 용혜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와 함께 군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내란 모의에 큰 혐의가 있고 국현을 문란하게 한 내란 범죄에 대해서 오늘 한 번이라도 사후적으로 반성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끝까지 옹호하고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행안부장관이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행안부장관으로서의 직을 저는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행안부 소속 경찰이 위헌·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라도 대통령의 지시만 받겠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휘와 감사를 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내란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반드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에게도 진지하게 건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행안부장관 탄핵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포함해서 진지하고 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후에 이런 역사적인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12·3 계엄령으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위기 사태는 현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친위 세력들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77조를 위반한 이 행위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될 가장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도한 쿠데타 세력은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건마저도 물리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무산되었다면 그 이후 정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미 예견된 윤석열 세력, 내란 세력의 계획을 간파한 위대한 국민들의 발 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비합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시도는 저지되었습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과 주요 책임자들은 헌법 수호가 아닌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계엄을 남용하고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충암파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판단 착오가 아닌 그리고 경고성 그런 계엄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였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과 일부 정부 부처는 헌법 수호가 아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불법 명령에 동조해서 현정 질서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가기관의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조자들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계엄법과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하고 민주적인 견제 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엄중히 인식하셔서 지나간 일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1분 30초만……

○위원장 신정훈 그럴까요?

○윤건영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윤건영 위원님.

○윤건영 위원 좀 중요한 사안이라서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방금 6시 3분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저희가 논의가 됐던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라는 건데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수본부장한테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 달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검찰이 경찰 국수본에게 관련 자료를 다 넘겨라, 검찰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신속성과 공정성에 많은 훼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윤석열 정부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으로 떨어진 이 상황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국수본에서 명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부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초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양부남 위원 저도 보도를 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현재 이 사안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은 수사로서 소추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의도가 뭔지는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신속하고 진지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담긴 내용은 이미 국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우려하고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께서는 헌법과 법령이 위임한, 국가수사본부에 위임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본 사건이 진실에 부합하려는 그런 진실규명이 되고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되어서 책임자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장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국민들이 오랫동안 확인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 수사본부장님께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수사본부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주어진 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시 한번 사태의 염중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국회나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끝까지 진실이 밝혀지는 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정훈** 예, 윤건영 간사님, 서면동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윤건영입니다.

오늘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서 이번 내란범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 상임위원회 모두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신속한 그리고 공정한 수사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여러 질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명의로 내란범죄혐의자들, 구체적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의 내란범죄혐의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위가 의지를 좀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윤건영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8시18분)

○**위원장 신정훈** 윤건영 간사님의 동의와 이해식 위원님의 찬성으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의사진행 변경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국회법에 따라서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 77조와 71조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3.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위원회안)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3항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수사기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사태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 7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결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결의안의 구체적인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김상욱 김성희 김종양 모경종 박정현 배준영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동만 정춘생 조승환 조은희
채현일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서기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의정관 김한수

경찰국장 박현수

경찰청

청장 조지호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기획조정관 도준수

서울특별시경찰청

청장 김봉식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경비부장 주진우

기동본부장 고범석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 강상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기획조정실장 조규영